

Vol.184

November

December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 Special theme

오직 환자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Avengers: HY Doctors ⑥

젊어도 방심 금물  
'대장암'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올해의 기획상

'2017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보건복지부 장관상

'2010 대한의사협회 원보콘테스트'  
동상

'2010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특별상

'2010 한국병원홍보협회 사보대상'  
대상

즐거운 편지

##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려하게 빛나던 가을 잎은 낙엽이 되고 찬바람에 바스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가을의 끝자락이 아쉽기는 하지만 떨어진 낙엽들은 새로운 희망의 밑거름이 되겠지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이번 11+12월 호에는 '대장암 치료를 위한 다학제'를 스페셜 테마로 이야기합니다. 초기 증상이 없어 발견이 쉽지 않고,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은 대장암이지만 조기에만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환자마다 다른 종양 위치, 병기 등을 고려해 치료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닥터히어로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Hanyang Topic에서는 환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업그레이드된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를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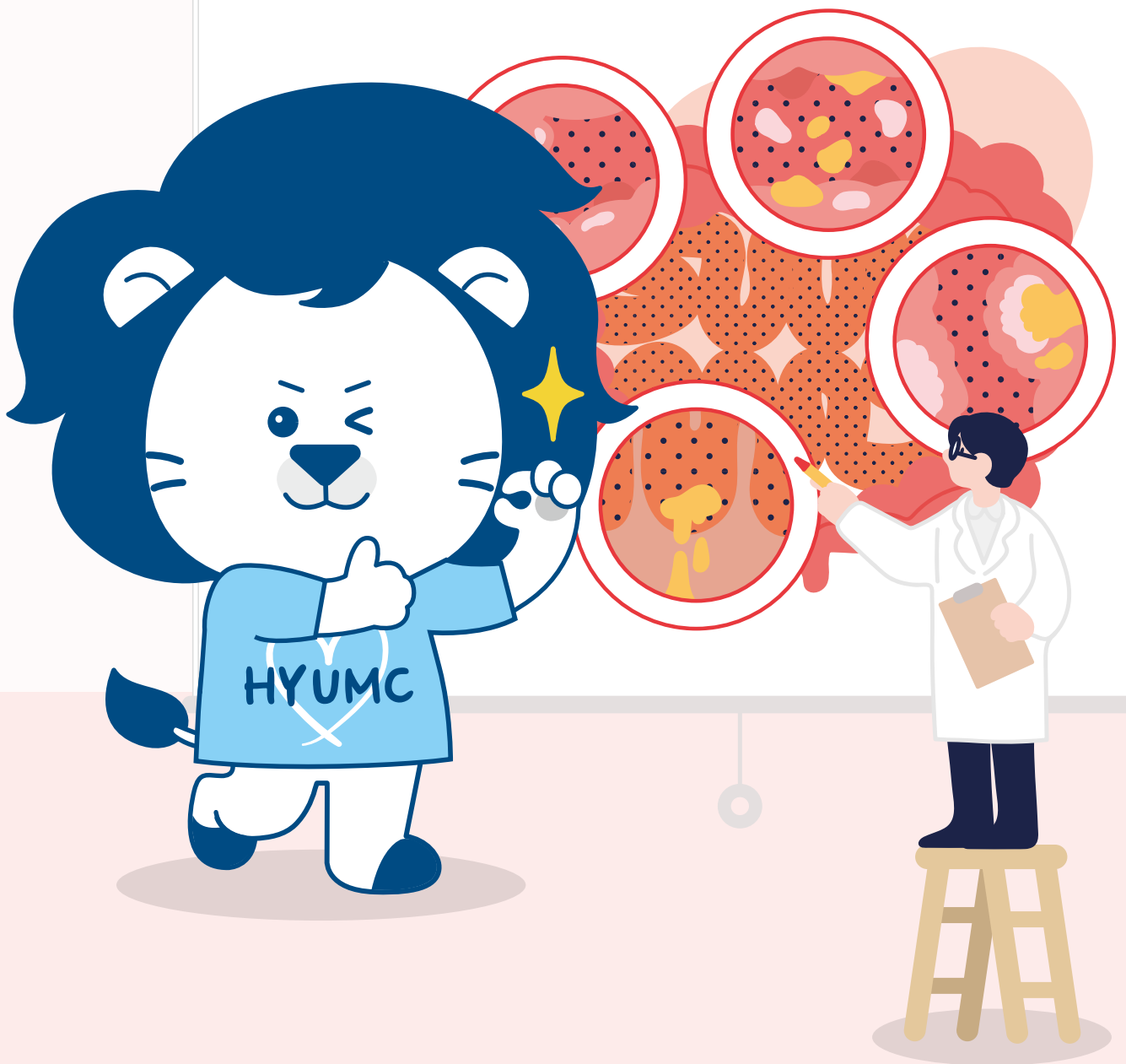
아울러, Love Life에서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봉사를 실천하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갈릴리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23년의 마지막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돌아보면 햇빛 좋은 날도,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 습니다. 이제 곧 소복소복 눈도 쌓이겠지요.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2023년이 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날이길 기도합니다.

이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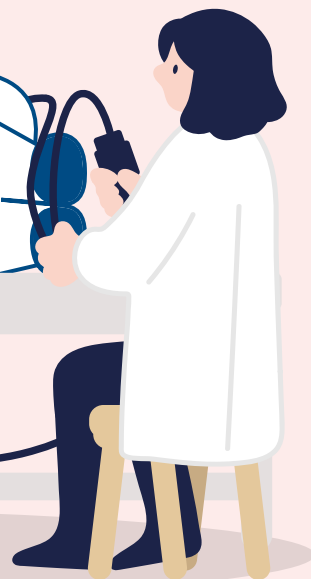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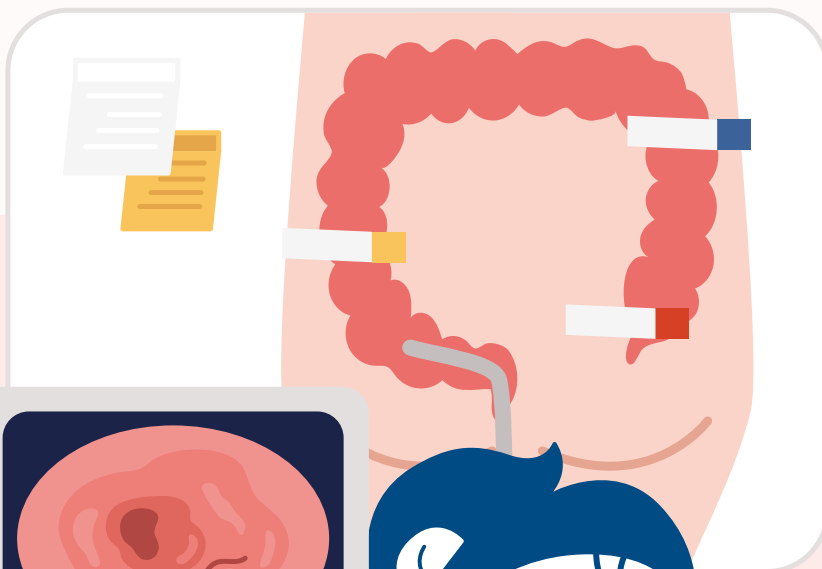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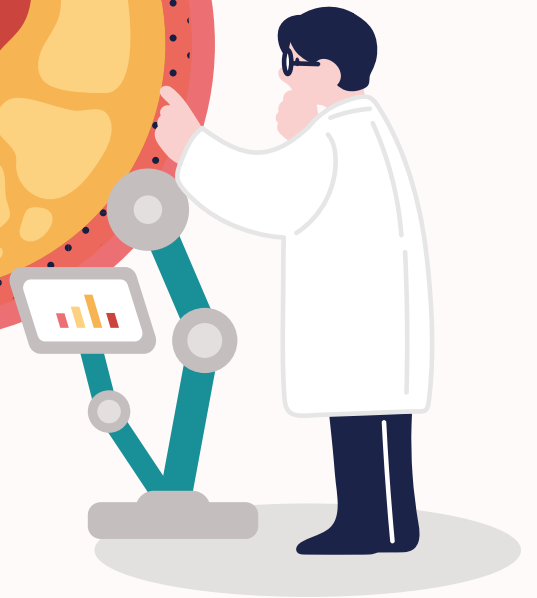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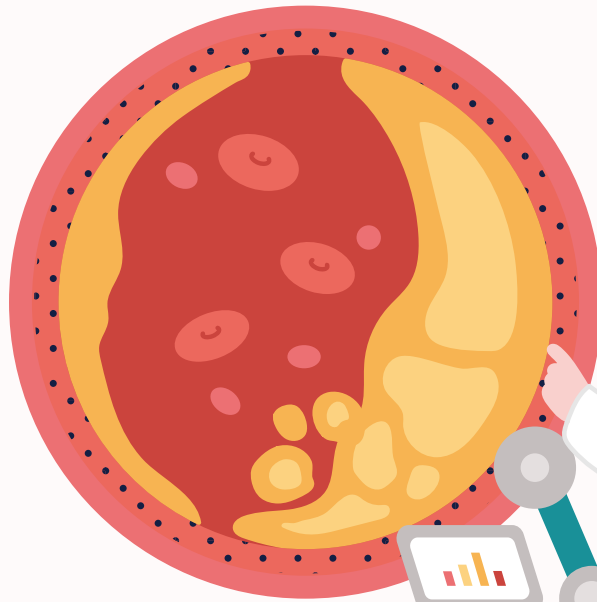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직무대행 이형중





## 점어도 방심 금물 ‘대장암’

대장암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한다면 완치가 가능한 암으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마다 다른 종양의 위치, 병기, 연령 등을 고려한 대장암의 다학제 진료에 대해 알아본다.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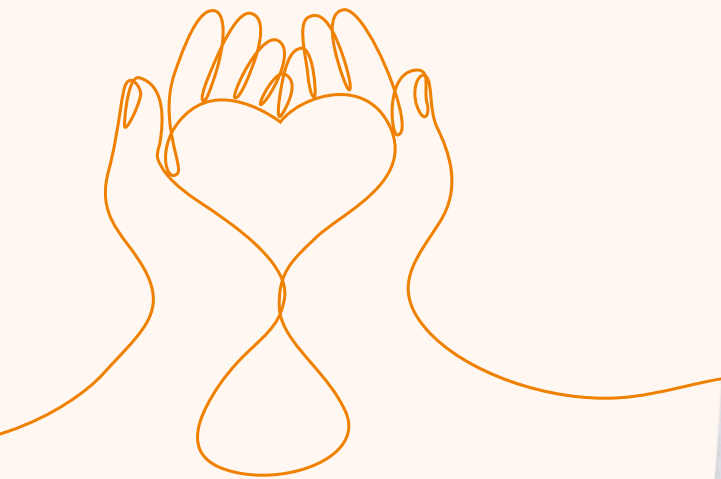
Vol. 184 2023 November / December

02	즐거운 편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윤재훈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08	미래의학 프론티어	고성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12	Hanyang Topic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18	Special theme ❶	조기 발견 매우 중요한 대장암
20	Special theme ❷	환자마다 다른 상황 고려해 최적의 수술적 치료
22	Special theme ❸	대장암 환자의 수술 후 삶까지 관리
24	Love Life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갈릴리회
28	주목할 만한 연구	우울증의 중심 증상, 네트워크 분석으로 찾아낸다!
30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영화 <오픈하이머>와 후두암
32	베스트파트너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34	Dr. Opera	모테스트 무소룩스키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36	Dr. Movie	기억은 언제나 정확할까, 추억은 언제나 행복할까
38	예술과 의술의 만남	미켈란젤로 디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와 통풍
40	고마운 당신에게	박예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42	언론 속 한양인	
44	한양뉴스	
46	Hihy 건강저장소	
48	발전기금	
50	이달의 이슈	
51	외래진료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23년 11월 13일 통권 184호 발행인 이형중 편집인 노성원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디자인 김미진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http://www.hyumc.com) 혹은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하시면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라인 매거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표지모델: 한양대학교의료원 캐릭터 HY-Leo(하이레오)

# 따뜻하고 다정하게 환자가 웃을 수 있도록 돕는 행복한 의사



## 윤재훈

한양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윤재훈 교수는 인터뷰 내내 눈맞춤을 하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모습에서 '내 앞의 환자에게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라고 느껴져 나와 내 가족이 아플 때 주치의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 환자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사로서 최종 목표라는 윤재훈 교수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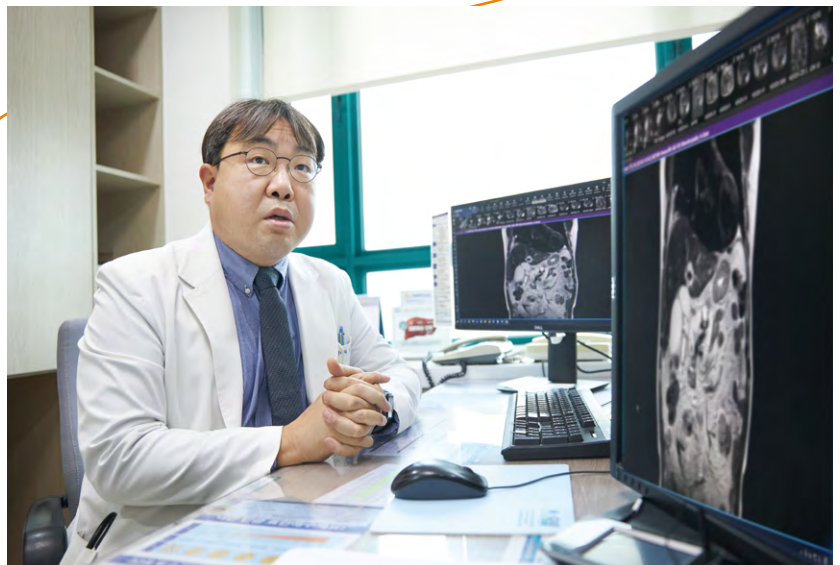
## 공대를 꿈꾸던 사춘기 소년, 의대생되다

〰〰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무언가 그리거나 만드는 등 손으로 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윤재훈 교수는 본래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물리학 같은 공대생을 꿈꿨다고 한다. 전형적인 이과생으로 공대 진학을 꿈꿨다던 그가 어떻게 소화기내과 췌·담도 분야 베스트 닥터가 된 걸까?

“저는 어렸을 적 그냥 순수한 이과생으로 공대를 가는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사춘기 즈음 ‘과연 보람이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 나는 왜 사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때는 누구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웃음) 삶의 이유를 충분히 느낄만한 직업에 대한 고민의 답이 ‘의사’였던 거죠. 그런 이유로 의사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그 당시 수도권에 의과대학이 8개밖에 없었는데 그중에서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의 위상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최첨단 시설 병원이 서울에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양대학교병원에는 에어샤워가 있는 수술방이 이미 있었고, 다른 시설도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했죠.”

그렇게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왕십리에서의 생활을 시작했고, 그 인연은 20년이 넘는 세월로 이어져 오고 있다. 소화기내과 안에서 아직까지도 대중적으로 낯선 분야인 췌·담도 분야를 고른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소화기내과 내 세부 전공을 정할 당시에 저는 진로를 빨리 정한 편이에요. 췌·담도 분야가 예전에는 아무래도 치료가 어려운 분야라서 인기 있는과는 아니었지만, 저는 췌·담도 분야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가 드라마틱 하게 호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과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이기도 했고요. 그러던 와중에 마침 권유를 받기도 해서 ‘옳다구나’하고 바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라며 그 당시 회상을 전달했다. 이어 “췌·담도 분야는 췌장담도연구회라는 이름으로 학회가 처음 시작되었고, 1세대 교수님들이 시작하신 시술뿐만 아니라 지금은 담도 내시경 등이 가능해지고 점점 분야가 발전하고 커지면서 치료 방법도 다양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라며 췌·담도 분야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을 드러냈다.





##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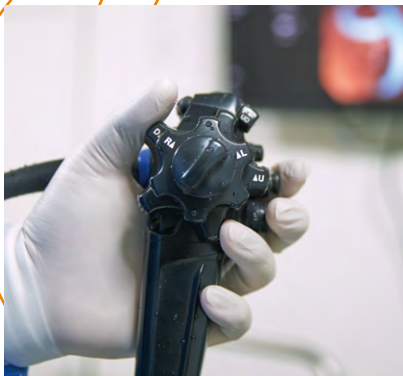
### 즐거워

췌·담도질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초기 증상이 없다는 것이다. 췌장관이나 담도가 막히지 않으면 이렇다 할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치료를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또한 기존의 50~60대 췌·담도암 환자뿐만 아니라 요새는 20~30대 발생도 늘면서 췌·담도질환을 겪는 환자들이 많다던데 원인은 무엇일까.

“사회적인 영향으로는 요새 MZ로 불리는 젊은 분들이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검진을 진행하면서 우연히 조기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서구화된 삶의 영향으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콜레스테롤 담석 환자나 색소성 담석 환자가 늘어나게 된 영향도 있습니다. 또 고령화 인구가 되다 보니 60~80대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와 함께 치료도 길어지고 있는 것을 포함해 췌·담도암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라며 윤 교수는 “최근 췌장 낭성 종양 전환 병변 검사 라든지, 내시경적 치료 등 최신 의료기술로 조기검진 및 치료성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췌·담도 분야의 미래가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윤재훈 교수는 “환자의 폭이 넓어지면서 증상도 다양해지고, 그만큼 의료 기술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어 늘 공부해야 하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라면서 “의학의 현 수준에 맞게 본인의 의술을 가장 최선의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라며 웃어 보였다. 그는 최근 존스홉킨스 대학으로 연수 후 “습관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해졌어요”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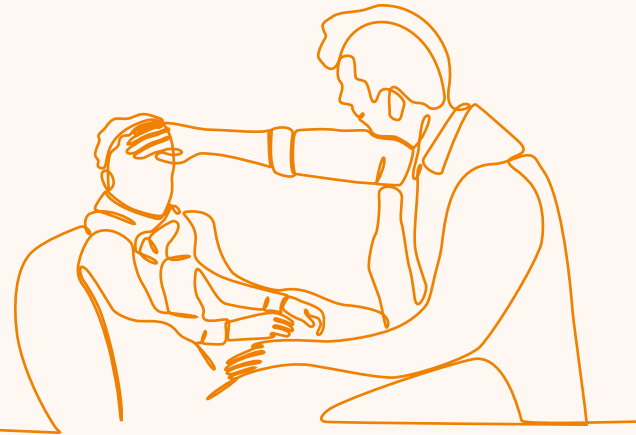
“초음파와 내시경을 통해서 췌장암, 담도암 등의 질환을 확인하는데, 이를 초음파와 내시경 유도하 미세 침습 검사라고 합니다. 존스홉킨스병원에서는 검사 시 병리와 의사가 함께 진행하는 의료 환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만큼 외래, 내시경 등 각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의료진도 각자의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라며 “한국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이런 것들은 적용하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많았고, 최신 지견을 넓히고 온 것 같아 좋은 기회였습니다”라고 말했다.



“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는  
그 어떤 사람의 관계보다  
따뜻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



### 따뜻함이 기반이 되는 관계

〰〰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는 그 어떤 사람의 관계보다 따뜻함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윤재훈 교수의 지론이다. “소화기내과 췌·담도질환은 특성상 중증도 환자가 많아 자칫 하면 분위기가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매우 예민한 상태인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차갑거나 냉소적으로 환자를 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제 좌우명인 ‘웃으며 살기’를 지키며 환자분들과 따뜻한 상호 교감을 중요시합니다” 말하는 모습에서 행여 작은 부분에 환자의 마음이 다칠까 봐, 불안해할까 봐 세심하게 신경 쓰는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마냥 따뜻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힘든 일은 없냐는 질문에 그는 현답을 내놓는다.

“예전에는 지금보다 분위기가 많이 엄했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겠지만 힘들다고 쟁그리거나 화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위험한 수술이나 시술할 때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하죠. 환자와 의사, 그리고 직원들 사이도 따뜻한 감정으로 ‘허허’ 웃으며 다정한 시선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이따금 머리가 복잡할 때면 그림을 그리는 일이 그에게는 또 다른 삶의 활력소다. 수준급인 솜씨로 사랑하는 가족들, 풍경 등을 그리면서 오히려 그림에 집중하다 보면 금세 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다.

### 환자를 웃게 만드는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

〰〰

그는 모든 인연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의 바람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하며 만나는 환자 한 명 한 명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소박하지만 울림이 느껴진다.

“많은 병원 중에 한양대학교병원을 찾아오시고, 또 수많은 의사 중에 저랑 만나게 되셨으니 얼마나 특별한 인연이예요. 이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치료하고, 노력해야겠지요. 저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고 정말 좋아지신 후 진심 어린 얼굴과 눈빛으로 감사 인사를 하실 때면 이러한 경험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감동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람에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윤재훈 교수의 꿈은 환자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중증 환자의 하루는 일반인의 하루와 밀도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상황에 맞는 적극적인 치료로 하루라도 더 많이 웃으며 생활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힘든 과정에 있는 사람을 고쳐 줄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은 하늘에서 주신 감사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윤재훈 교수. 환자를 생각하는 꿈을 위해 오늘도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



# 생체표지자 연구로 노화를 조기 진단해 슈퍼에이징으로 가는 길을 열다

고성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교수



## 새로운 길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 ⑥

최근 노화가 질병으로 등록됐다. 여기서 말하는 노화는 병적 노화로 노화가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노화가 일으키는 질병은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매, 파킨슨병 등이다. 이를 조기 진단하여 치료하고 슈퍼에이징, 즉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 고성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교수를 만났다.

### **Q. 그동안 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자랑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오랜 기간 제가 좋아하는 연구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매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 싶은데요, 2002년부터 20여 년 동안 임상으로서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임상의사로 운이 좋게도 동물 및 세포 실험 등을 통해 배운 것을 환자에게 접목해 보거나, 환자를 보면서 생기는 궁금증을 동물 모델에서 직접 실험할 기회를 통해 꾸준히 연구할 수 있었죠.

이제 이런 연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학회 내에서도 나름 인지도가 생겨서 '임상 연구와 전임상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교수는 고성호 교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연구를 같이 하자는 제안도 많은 교수님들께서 해주셔서 공동연구를 하면서 논문도 세계저명학술지에 많이 실리고 있어요. 의과대학을 다닐 때는 환자 치료가 목표였는데, 지금은 연구가 더해져서 진료와 연구를 함께 할 수 있으니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식약처와 인연으로 시작된 작은 일들이 이렇게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죠.

### **Q.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들었는데, 조기 발견에 대한 연구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연구 트렌드가 바이오마커나 생체표지자 연구인데요, 이것이 곧,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에 관해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면 다른 방법으로 진료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도 조기 진단을 위한 생체표지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진행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로 끝나지 않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규제 기관인 식약처 승인을 위한 부분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지난 7월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함께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캠비(성분명 레카네맵)가 미국 식약처(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내년 중후반쯤 국내 허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거예요.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을 찾아오면 이미 뇌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증상을 완화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하지만 혈액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이 가능해진다면 치료 효과는 훨씬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Q.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도 알츠하이머병 치료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줄기세포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하는 명칭이고요. 줄기세포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줄기세포들이 존재합니다. 체외 수정된 배아세포들에서 채취한 배아 줄기세포가 있고, 제대혈이나 골수나 혈액 등에서 추출해 내는 성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줄기세포보다 얻기가 쉽고 윤리적인 문제가 적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체외에서 분화 유도를 통해 배아 줄기세포와 성체 줄기세포의 가장 좋은 중간점을 찾아서 치료 효과를 높이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배양된 줄기세포를 혈관성 치매, 뇌경색 후 유증, 알츠하이머병 모델에 접목해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Q. 그럼, 성상교세포를 활용한 치료법은 어떤 것인가요? 다른 치료법에 비해 차별화된 장점이 있나요?**

연구는 되고 있지만 아직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줄기세포에서 체외에서 분화 유도를 통해 그 기능을 강화한 것이 성상교세포입니다. 원 줄기세포는 원하는 만큼의 치료 효과를 유도하기 어려워 성체 줄기세포를 특정 조건에서 분화 유도를 하면 성상교세포 모양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화가 되면 더 많은 영양 인자를 보유하게 되고,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단순히 '건강한 줄기세포를 얻어서 체내에 이식하면 알츠하이머병을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 연령대가 최소 60대 이상이라 줄기세포를 이식한다고 해도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포 분화 기능은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영양 인자, 신경계 보호 인자들의 기능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줄기세포를 외부에서 배양해 이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이를 환자에 접목시키는 임상을 진행하려는 단계 역시 식약처의 승인이 어렵습니다. 안전성을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쉬웠던 연구는 없었기에 이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웃음)

**Q. 최근 '중증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언어장애 치료 효과'라는 논문을 발표하셨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노화는 질병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화는 질환이나 치매 등 병적 노화가 아니면 진단할 방법이나 치료할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죠. 중증도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증상이 언어장애입니다. 우리 몸에는 노화와 연관된 텔로미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체 내 시계라고 하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텔로미어의 길이를 알면 이 사람의 생체 나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소실된 텔로미어를 복구시키는 데에는 텔로머레이즈(telomerase)라는 효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텔로머레이즈의 기능을 강화한 단백질로 만들어 체내에 넣어주면 언어장애를 완벽히 멈출 수는 없지만 그래프에서 언어 부분이 나아지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항암제를 생각하고 연구를 하다가 항염증 효과를 입증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신경외과 한 명훈 교수와 발표했던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을수록 노년기에 우울증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도 텔로미어의 연장선상에 있는 연구 논문입니다.

**Q. 많은 논문과 다양한 연구를 혼자 진행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절대 혼자 할 수 없고요. 동시에 여러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바이오마커 연구팀, 멀티센터 연구팀, 줄기세포 연구팀, 국가 과제 연구팀 등 팀을 꾸려서 진행하는 공동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동물실험팀은 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저 혼자 연구하고 논문을 낼 수도 있지만 제가 하버드대학에서 연수를 할 때 집단 연구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팀을 이뤄서 함께 하니깐 굉장히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도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젊은 교수들은 연구에 관심이 있어도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데 제일 큰 이유가 기회가 없어서예요. 저를 임상교수실 협실장으로 믿고 맡겨주셔서 병원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조교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제 연구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Translation Research Academy'라는 것을 오픈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조교수 중에 연구하고 싶다는 교수들과 여러 연구를 하다 보니 실제로 연구비를 따내는 성과도 있었어요. 이러한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좋은 논문이 많이 나와 또다시 연구비를 따는 안정적인 구조로 운영되도록 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현재 일정부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25명 정도가 모여서 2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고, 기초실험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실습도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면 논문 발표까지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여러 진료과 교수님들과 함께하니깐 환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지속되기도 하고, 현장에서 바로 접목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러한 공동연구가 좋은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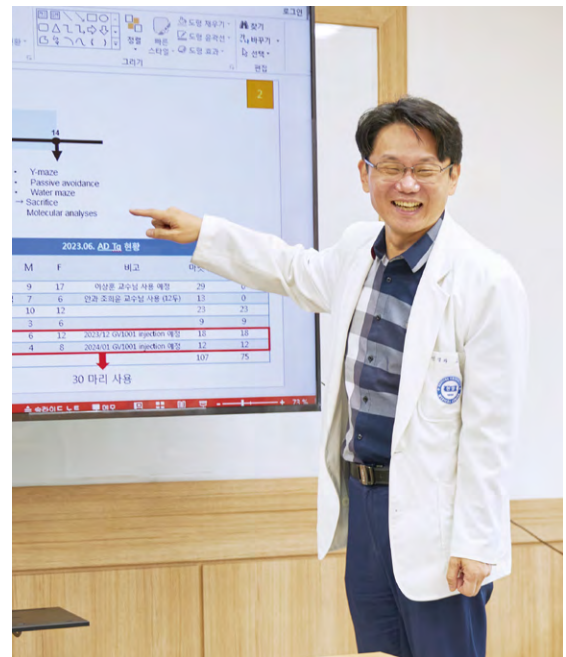
**Q. 주 4회 외래만으로도 충분히 바쁘실 것 같은데, 논문 작성 및 연구, 게다가 젊은 교수들을 위한 아카데미까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열정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쓸 만큼 바쁘고 쉴 시간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 고민도 많고요. 가끔 '부족한 능력에 일을 많이 벌인 것이 아닌가. 환자 보는 일만 열심히 해도 의사의 본분은 다 하는 것인데'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연구하고 논문 쓰고, 환자를 만나는 일이 정말 즐겁고 좋아서예요. 누가 시켜서 했거나 재미없었다면 진작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Q. 앞으로 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포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언젠가 '왜 연구를 하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환자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자를 건강하게 문제없이 잘 지내도록 하는 게 의사인 제가 해야 할 일이죠. 진료 현장에서 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그 앞단에서 질병을 예방해 환자분들이 슈퍼에이징으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제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고성호 교수. 그가 말하는 슈퍼에이징, 건강한 노화 세상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





# 환자의 편의를 고려한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업그레이드!

##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지난 9월 인터벤션실을 확장 개소하고, 접수 시스템도 재정비했다.

환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환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위해 새로 단장한 것으로,  
환자들은 물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까지 동반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오른쪽부터) 영상의학과 과장 이승훈 교수, 박종국 팀장



### **환자 편의를 고려한 영상의학과 리모델링**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검사받는 환자의 편의를 고려해 MRI, CT, X-ray 등 검사실을 리모델링함과 동시에 인터벤션실을 확장 개설했다. 이번 인터벤션실 확장은 기존 한 대의 혈관 조영 장비로 운영되던 것을 최첨단 디지털 장비 추가 도입으로 두 대를 운영하게 되면서 시행된 것. 검사의 효율성도 높아져 환자와 더불어, 직원들까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인터벤션실을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CT실과 MRI실, 일반 촬영실 등의 공간도 조금씩 변경을 단행했고, 그 덕분에 환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와 더불어 검사 접수 시스템까지 확 바뀌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던 접수실을 한 곳에서 접수한 후 각 검사실로 안내해 바로 검사가 가능해졌다. 환자 동선까지 깔끔해져 환자들이 검사실을 찾기 위해 헤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가장 큰 변화이다. 이것이 바로 ‘환자 맞춤형 병원’을 향해 한 발 더 다가간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 **통합 접수 시스템으로 높은 만족도 제공**

기존 영상의학과 검사는 MRI는 MRI실 접수창구에서, CT는 CT실 접수창구에서 접수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어느 곳에서 접수를 하고 어디서 검사를 하는지 접수창구와 검사실을 찾는 것에 혼선을 느끼는 환자 및 보호자가 좀 더 편하게 영상의학과를 이용하도록 통합 접수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는 영상의학과 과장인 이승훈 교수의 적극적인 추진과 병원에서 진행한 QI(Quality

Improvement) 활동에서 비롯된 일이다. QI활동이란 환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활동으로 영상의학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만족도 조사 및 환자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도출해 접수 시스템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23년 영상의학과 19기 해우소 QI 활동 중 가장 큰 프로젝트였다. 게다가 접수 시스템을 변경한 것은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가 생긴 이래 처음 시도한 일이라고.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 곳에서 접수해서 각 검사실로 환자를 보내주는 방식이라 제대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을까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제 와 돌아켜보니 괜한 걱정이었던데요. 시행한 지 두 달 여 되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라며 “이전에는 환자분들이 CT실을 찾는 경우 복도의 끝에 있어서 위치 질문을 종종 하셨는데 접수를 한쪽에서 받고 복도를 따라 쪽 여러 검사실이 있으니까 한눈에 가고자 하는 검사실을 찾을 수가 있어서 영상의학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많아도 오히려 혼잡도가 개선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영상의학과 박종국 팀장의 얼굴에서 통합 접수 시스템에 대한 만족감을 엿볼 수 있었다. 통합 접수 시스템 덕분에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짧아졌고, 검사실이 많아 혼선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되어 환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박 팀장의 설명이다.



### 효율성이 높아진 인터벤션실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인터벤션실에서는 외과적 수술 없이 영상 장비를 이용, 최소침습적 인터벤션 시술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거나 조직검사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한 대의 장비로 여러 진료과가 사용했기 때문에 치료 일정을 잡기가 어려워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고자 의료진들은 점심시간까지 쪼개가며 검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새로 단장한 인터벤션실에는 최첨단 디지털 혈관 조영 장비가 추가 도입되어,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영상의학과는 90%가 다른 진료과와 협진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여러 진료과가 한꺼번에 일정을 잡아야 하니 스케줄이 아주 빡빡했죠. 그리고 기존에는 여러 검사실을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한 공간의 대기실을 사용했는데 리모델링 후 인터벤션실만의 독립된 환자 대기 공간이 생긴 것이 제일 기쁩니다.”

인터벤션실은 클로즈시스템으로 환자는 닫힌 공간에서 시술 전과 시술 후 편하게 대기할 수 있어서 환자 만족도가 매우 올라갔다고. 이뿐만 아니라 새 장비를 구비함으로써 적은 조영제 투입과 빠른 영상 획득이 가능해졌고, 고해상도 영상 구현 및 처리도 가능하다. 또 기존 장비보다 방사선 피폭선량을 현저히 줄여 환자의 안전과 편의성도 높아졌다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치료를 빠르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원래 기기 한 대 도입해서 공간 공사까지 2개월이면 충분했는데 전체 리모델링 기간이 6개월이나 걸렸어요. 예상보다 3배의 시간이 소요된 것인데, 이는 한 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인터벤션실 문을 닫고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당초 계획보다 오래 걸린 것이죠. 리모델링 하면서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전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환자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고생한 마음이 해소됐고 의료진의 입장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인터벤션실의 증축 공사를 앞두고 가장 효율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긴 고민의 시간이 있었다고 말하는 박종국 팀장.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환자 불편은 최소화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공간을 반씩 나눠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그렇게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리모델링 공사중에도 문제 없이 인터벤션실을 찾는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 **환자별 맞춤치료 공간과 전문 인력으로 원활한 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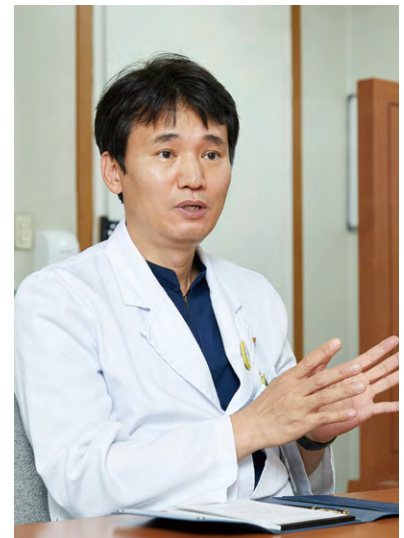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완벽한 ‘환자 맞춤치료 공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순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영상의학과장 이승훈 교수는 “2023년에 인터벤션실을 확장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해 환자 맞춤치료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라며 “순차적으로 MRI와 CT 기기를 추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교수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된 데에는 영상의학과와 가파른 성장세가 있기 때문이다.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총검사 건수가 6.4% 정도 증가했다. 그중에서도 CT는 11%, MRI는 9%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2023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발맞춰 원활한 검사가 진행되고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변화는 불가피했을 것이다.

영상의학과장 이승훈 교수는 “이번 인터벤션실 확장 및 검사실 리모델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높은 ‘특성화된 병원’, ‘전문화된 병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면서 “한양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다양한 최첨단 의료 장비를 확보해 더욱더 안전하고 정밀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 좋은 변화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를 전했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한양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와 미래를 그려본다. 🌐



“영상의학과가 다른 진료과들과  
함께 환자분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공간에서  
진료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 AVENGERS: HY DOCTORS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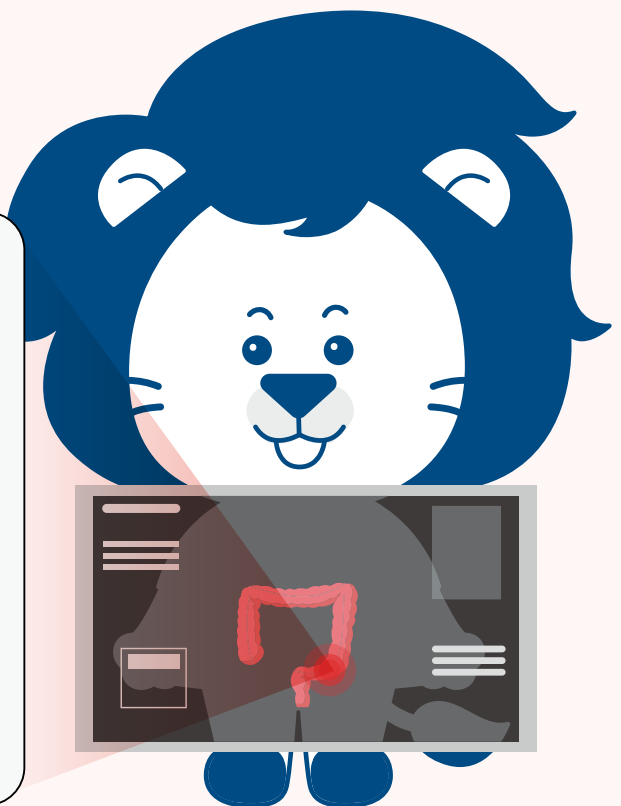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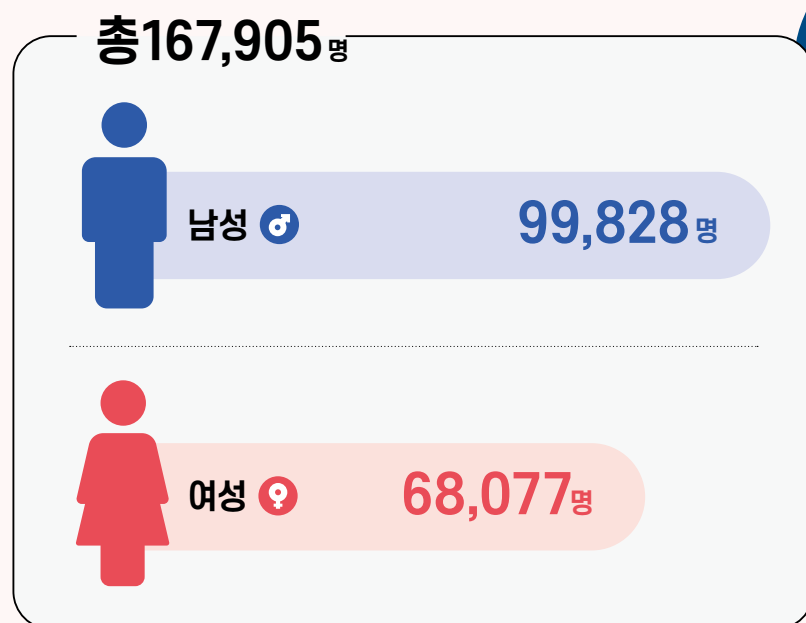
오직 환자를 위해 한자리에 모이다

# 젊어도 방심 금물 ‘대장암’

대장암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기에 발견했을 때에는 완치가 가능한 암으로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환자마다 다른 종양의 위치, 병기, 연령 등을 고려한 대장암이 다학제 진료를 소개한다.

### 대장암 성별 환자 수(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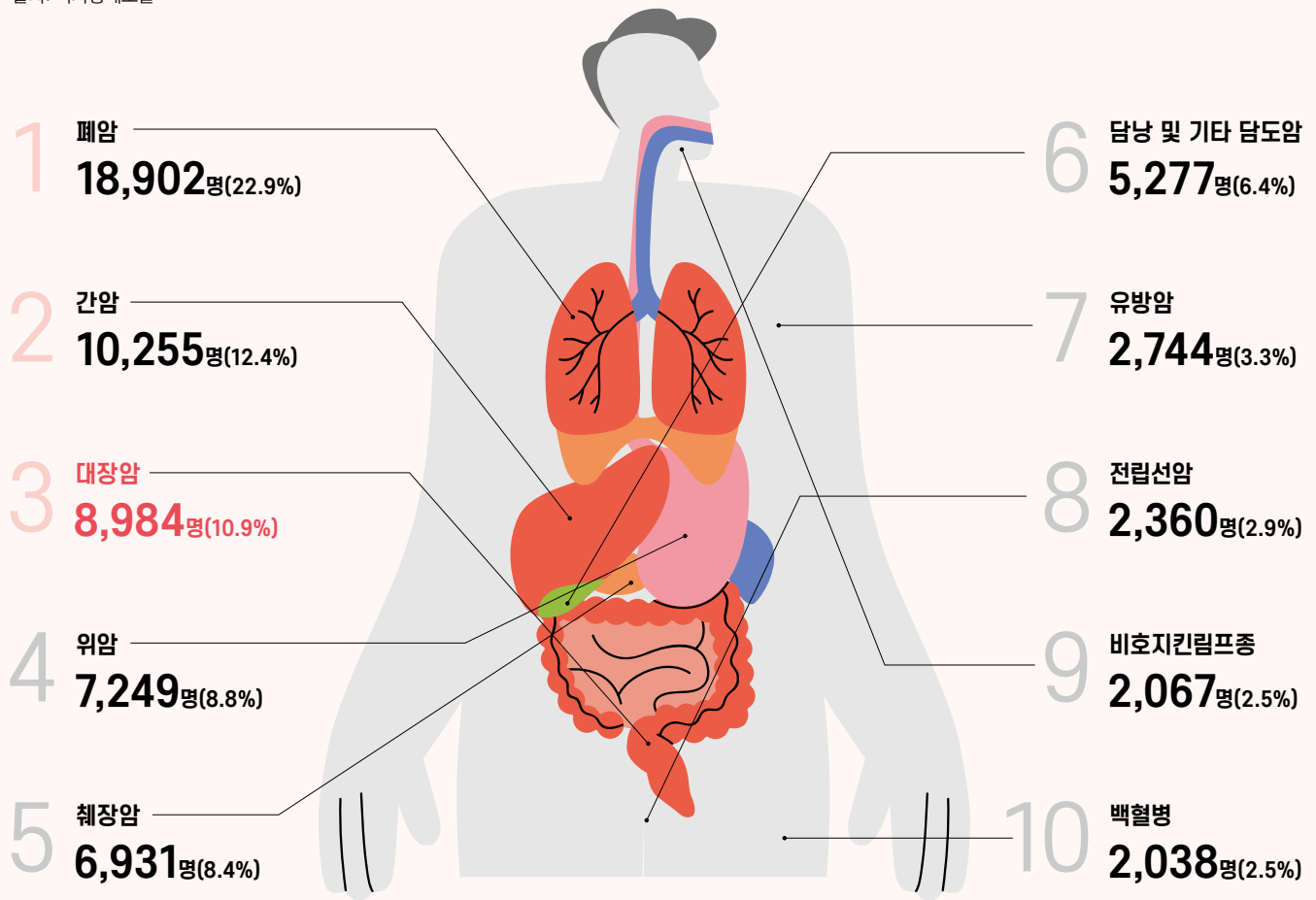
출처: 건강심사평가원





## 주요 암종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2021년 기준)

출처: 국가통계포털



## 연령별 주요 암발생률(2020년 기준)

단위: 명/10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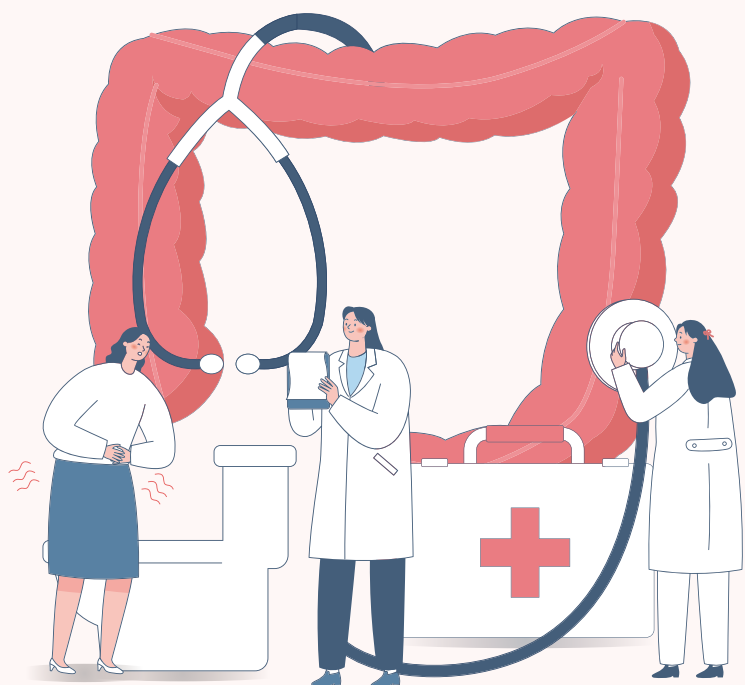
출처: 국가암정보센터

	0~14세	15~34세	35~64세	65세 이상
1위	비호지킨 림프종(20.3)	갑상선(40.5)	갑상선(86.4)	폐(249.1)
2위	백혈병(4.6)	유방(5.5)	유방(80.2)	대장(184.3)
3위	뇌 및 중추신경계(2.0)	대장(3.6)	대장(51.0)	위(179.8)
4위	갑상선(0.5)	백혈병(3.3)	위(48.7)	전립선(162.3)
5위	신장(0.4)	비호지킨 림프종(2.5)	폐(35.2)	간(100.6)

# 01 젊어도 방심 금물 대장암

## 조기발견 매우 중요! 대장암

### 대장암의 초기 증상과 진단



#### 대장 용종 제거 시 최대 90% 대장암 예방 가능

대장암은 대장에 생기는 신생물 중에서 조절되지 않는 증식과 전이를 특성으로 하는 악성 신생물을 의미한다. 95% 이상 대부분의 대장암은 대장 용종으로부터 발생된다. 대장 용종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축적되면서 점차 자라면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선종-암-연속체(adenoma-carcinoma sequence)'라는 말로 표현한다. 전통적인 대장의 선종-암 발병 기전은 APC 유전자 변이에서 시작하여 유전적인 돌연변이와 염색체 불안정성이 순차적으로 축적되면서 현미부수체 안정 종양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 용종 중 선종 외에도 대장 톱니상 병변 또한 대장암의 전구 병변으로 알려져 있다.

무경성 톱니상이 암으로 발전하는 경로는 BRAF 또는 KRAS 유전자 변이에서 시작하여 종양억제유전자인 CpG island methylator phenotype(CMP)의 메틸화에 의하여 무경성 톱니상 선종으로 발전하고, 메틸화가 축적되면서 현미부수체 안정 또는 불안정 종양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대장 용종으로부터 발생되고 또 대장 용종에서 대장암까지 진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장 용종만 철저히 제거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이 다른 암과 구별되는 대장암 발생의 가장 큰 특징이다. 미국에서 시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대장 용종을 철저히 제거할 경우 많게는 90%의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 대장암, 초기 증상 없거나 증상만으로 구분이 어려워

대장암의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증상만으로 대장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는 없다. 대장암이 진행이 되면 그제야 혈변, 변비, 복통, 변이 가늘어 지거나 몸무게가



대부분의 대장암은 대장 용종으로부터 발생되고 또 대장 용종에서 대장암까지 진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장 용종만 철저히 제거하면 많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


빠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측 대장에 암이 생긴 경우 설사, 소화 불량, 복부 팽만, 복통, 빈혈 등이 유발될 수 있고 좌측 대장에 암이 생긴 경우에는 변비, 혈변, 점액변 등의 배변 습관 변화나 장폐색이 유발될 수 있다. 직장암에 암이 생긴 경우에는 혈변, 뒤무직, 배변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대장암에서만 나타나는 특이적인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대장암을 구분할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증상들이 갑자기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을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변잠혈검사, 대장내시경 등 대장암을 진단하는 다양한 방법

대장암을 진단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대변잠혈검사는 변에 혈액이 묻어 나오는지 확인하는 진단법으로 대변에서 혈액이 묻어 나오면 양성, 혈액이 없으면 음성으로 판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선별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50세 이상의 국가 건강검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사이다. 대변잠혈검사는 간편해서 시행하기는 쉽다는 장점은 있지만 대장암을 진단하는 정확도는 낮다. 또한 다양한 질환에서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변잠혈검사서 양성이라고 해도 모두 대장암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장암이 실제 있는 경우에도 모든 대장암에서 출혈이 발생하면서 대변으로 혈액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장암이 있어도 대변잠혈검사서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처럼 대변잠혈검사는 대장암을 진단하는 정확도가 낮고 대장 용종을 진단하는 데는 정확도가 더욱더 떨어진다는 제한점이 있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내시경 기계를 항문으로 넣어서 기계 앞에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대장 내부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이다. 최근 광학 기술의 발달로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 점막을 수십 배 확대하여 1~2mm 크기의 대장 병변도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대장내시경의 정확도는 매우 높다. 또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대장 용종이나 대

장암을 정확히 진단하고 바로 조직검사하거나 내시경 시술을 통해 대장 용종이나 일부 대장암을 완전히 제거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대장내시경은 준비 과정과 시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은 있지만 다른 검사에 비해 월등히 정확도가 높고 검사를 하면서 대장 용종과 대장암을 정확히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도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 대장암의 정확한 진단과 예방을 위해 가장 추천되는 검사이다. 갑자기 발생한 배변 습관의 변화나 체중 감소, 복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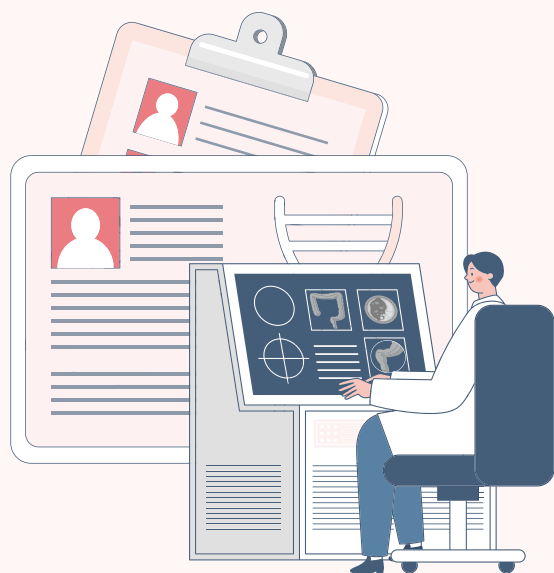
이외에도 대장 바륨 조영술, CT 대장 조영술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작은 용종과 편평한 형태의 대장 용종은 진단하기 어려우며, 관찰된 대장 용종이나 대장암을 조직검사 하거나 제거하려면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검사이다. 



## 02 젊어도 방심 금물 대장암

# 환자마다 다른 상황 고려해 최적의 수술로 치료

## 대장암의 수술적 치료



### 대장암 병기와 치료방법

우리 몸에서 대장은 1.5m 정도 길이로써 크게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구불결장, 직장으로 나뉘는데, 이곳에 생긴 암을 대장암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대장암은 결장암과 직장암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대장암은 대장 점막에서 생긴 용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년에 걸쳐 암으로 서서히 진행된다. 따라서 아직 용종 상태 또는

조기 대장암일 때는 내시경 검사를 통한 진단 및 절제만으로도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기 대장암을 벗어나 진행된 대장암은 중앙 주위로 림프절 전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치적 절제술이 필요하다.

대장암의 병기는 종양의 침윤 정도 및 림프절 전이에 따라 크게 1~4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근치적 절제술이 필요하다. 2~3기의 경우 결장암에서는 근치적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하고 직장암의 경우에는 상부에 생긴 직장암은 근치적 절제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을, 하부에 생긴 직장암의 경우에는 수술 전 방사선화학요법 후 근치적 수술을 시행한다. 4기 대장암은 대장 이외의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로 주로 간, 폐, 원격 림프절 전이를 보이는데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근치적 수술 및 동반 절제를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다.

###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수술 방법

대장암은 생긴 위치에 따라 수술 방법이 나뉘게 된다. 맹장 또는 상행결장, 근위부 횡행결장암은 말단 소장부터 횡행결장까지 절제하는 우측 결장 절제술을 시행하고, 원위부 횡행결장 및 하행결장암은 횡행결장부터 구불결장까지 절제하는 좌측 결장 절제술을 시행한다. 구불결장에 위치하는 암은 구불결장을 절제하고 골반 복막의 상부에서 남은 장을 연결하는 전방 절제술을 시행한다. 상부 직장 및 중부 직장암은 구불결장 및 직장을 절제한 후 골반 복막의 하부에서 연결하는 저위 전방 절제술을 시행한다. 항문과 가까운 곳에 종양이 있는 하부 직장암의 경우는 항문을 보존하는 항문 괄약근간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항문까지 완전히 절제한 후 영구 장루를 조성하는 복회음 절제술을 시행한다. 과거에는 개복 수술로 진행되었던 대장암 수술은 1991년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처음 소개되면서 2000년대부터 점차 그 수가 늘어 최근에는 대부분 복강경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복강경



여러 연구를 통해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은 생존율에 차이가 없고 합병증 및 삶의 질 측면에서 복강경 수술이 더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수술법은 미세침습수술의 하나로써 기존의 긴 수술 절개창을 대신하여 복부에 1cm 미만의 3~5개 구멍을 뚫고 이 구멍을 통해 복강경 기구들을 삽입하여 수술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개복 수술과 비교하면 복부 내에서 시행되는 술기는 같으면서 작은 절개창만으로 수술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이 현저히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며 미용적으로도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개복 수술과 복강경 수술은 생존율에 차이가 없고 합병증 및 삶의 질 측면에서 복강경 수술이 나은 결과를 나타냈다.

직장암의 경우, 조기 직장암 및 수술 전 방사선화학요법 후 종양 크기가 많이 줄어든 경우는 경향문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육안으로 종양을 확인하면서 절제를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경향문 미세침습 수술 TAMIS(transanal minimally invasive surgery)을 시행함으로써 종양을 더 정확히 관찰하며 정교하게 절제할 수 있게 되었다. 진행성 직장암도 기존의 복강 내에서 직장을 절제하던 방법에서 최근 경향문 직장전절제술 TATME(Transanal Total Mesorectal Excision)이 시행되고 있다. 이 수술방법은 골반이 좁거나 비만인 환자, 항문과 가까운 곳에 종양이 위치하면 기존의 복강 내에서 어려웠던 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유럽 및 최근 아시아에서도 그 시행 수가 늘고 있다.

## 대장암의 로봇 치료

2000년대 중반에 처음 로봇 대장암 수술이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그 수가 급격히 늘어, 특히 직장암은 약 30%에서 로봇 수술이 시행되고 있다. 로봇 수술은 기존의 복강경 수술과 유사하나 원격으로 조종하기 때문에 수술자의 피로도가 덜하고, 관절이 있는 기구를 통해 좁은 골반에 위치한 종양도 복강경 수술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해상도가 좋은 3D 카메라를 수술자가 직접 조작하여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때문에 수술하고자 하는 부위를 정확하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여러 연구에 의하면 복강경 수술과 비교

하여 유사한 종양학적 결과를 보이면서 성 기능이나 배뇨 기능의 회복이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로봇 수술의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의 구멍만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단일공 로봇 수술(SP robot) 또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최소의 절개창만으로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증도 적을 뿐만 아니라 회복 기간이 짧아 총 입원 기간을 2~3일 정도 더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복강경 수술이 개복 수술을 대체하였듯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머지않은 미래에 로봇 수술이 복강경 수술을 대체하여 표준 술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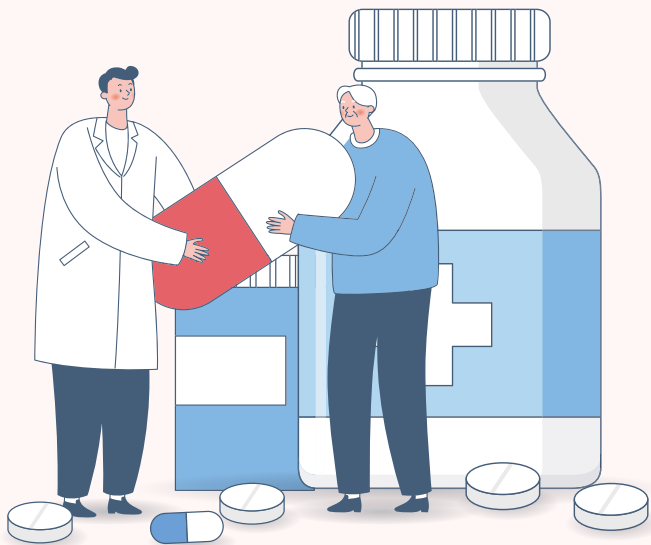
## 대장암 다학제 진료의 필요성

•  
뱃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만 암 치료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경우일 듯하다. 특히 대장암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장암의 치료 계획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영상 및 내시경적 진단은 필수적이다. 종양의 침범 정도 및 전이 여부를 확인하고 수술적 절제 가능성과 절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영상의학과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관여하게 된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과의사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고 수술 후 결과 및 합병증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수술 전 방사선화학요법이나 수술 후 보조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전이성 대장암에 있어서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의 적용과 부작용에 관해서는 종양내과와 치료방사선 전문의의 의견이 도움된다.

이처럼 대장암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다학제의 큰 장점이다. 많은 연구를 통해 다학제가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다학제를 통해 환자 개개인에 게 맞춤형 진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

## 대장암 환자의 수술 후 삶까지 관리

### 직장암의 치료와 장루



직장암이 진단되면 환자들은 “항문을 살릴 수 있나요?”, “변주머니 차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며 치료 전부터 장루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나타낸다. 하지만 최근 직장암의 수술은 다양한 치료 및 수술 방법의 발전으로 항문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장루 관리를 통해 장루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직장암의 치료 방법과 장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장암 치료에서 다학제 진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직장암이란?

대장은 크게 결장과 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직장암은 대장의 하단 부분인 직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다. 직장암은 초기에는 무증상일 수 있으나, 진행됨에 따라 변비, 혈변, 복부 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병이 많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 직장암의 치료

직장암의 치료에는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적용되어 적절한 치료 방법의 선택이 중요하다. 또한 직장암은 결장암에 비해 복잡한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된다.

#### ①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 수술을 위한 준비

직장암 치료에서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암은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와 항암화학요법을 함께 시행한다. 치료를 통해 종양의 크기를 줄여 수술적 제거를 더 쉽게 하고 수술 후 국소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직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다.

**방사선 치료** 방사선을 암세포에 조사하여 종양 크기를 줄이는 치료이다. 방사선 치료는 종양의 크기를 줄여 수술을 수월하게 하며, 항문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을 가능하게 한다.

**항암화학요법** 전통적으로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에서 항암화학요법은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수술 전 항암화학요법은 전신에 퍼져 있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치료 후 전신 재발을 줄이는 역할까지 치료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 ② 수술적 치료: 치료의 핵심

수술 전 항암방사선 치료를 통해 직장암이 적절히 관리되면,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과 같은 다양한 수술 방법을 통해 직장암의 위치에 따





직장암의 수술은 다양한 치료 및 수술 방법의 발전으로  
항문 기능을 보존하는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장루 관리를 통해  
장루 환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

라 수술을 시행한다.

**저위전방 절제술** 직장의 중간 또는 상부에 있는 암에서 시행된다. 가능한 한 정상 항문 기능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암이 있는 부위를 절제하고 남은 직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수술이다. 수술 후에 일시적인 장루가 필요할 수 있다.

**복회음 절제술** 하부 직장암의 경우에 시행된다. 이 수술은 직장과 항문을 제거하며, 수술 후 영구적인 대장루가 필요하다.

### ③ 수술 후 보조 치료: 최종 방어

수술 후에는 항암화학요법과 같은 보조 치료가 남아 있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재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 장루와 환자 삶의 질

장루는 대장 또는 직장과 관련된 질환 또는 암 치료를 위해 외과 수술로 생성되는 장의 출구이다. 장루는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 일시적 장루와 영구적 장루로 나눌 수 있다. 저위전방 절제술 후 문합부 보호를 위한 장루는 일시적 장루이며 기능을 다한 후에 수술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다. 반대로 복회음 절제술 후의 장루는 복원을 할 수 없는 영구적 장루가 된다. 또한 장루는 장의 위치에 따라 대장루 또는 회장루로 분류되며 모양에 따라 환상형 또는 말단형 장루로 분류될 수 있다. 장루는 직장암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며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장루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일상생활은 큰 변화와 도전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장루 관리 교육을 통해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장루 관리 교육을 통해 환자는 적절한 장루 관리 방법을 교육받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장루 관리 및 교육에서 장루 전문 간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장루 전문 간호사는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환자가 더욱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장루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환자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장루 전문 간호

사는 단순한 의료적 관리를 넘어서 환자의 심리적 안정까지도 고려한다. 장루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이고 적응 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환자와 가족에게 정서적 지원도 제공한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은 장루 환자가 건강하고 활발한 삶을 계속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직장암 치료에서 다학제 진료

직장암 치료는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이며, 다양한 치료 방법으로 인해 치료가 복잡하다. 이에 따라 직장암의 치료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필수적인 진료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학제 진료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직장암 다학제 진료에는 대장항문외과, 종양내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등 여러 과의 의사가 참여하여 각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협력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팀을 이루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 치료 방법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또한 다학제 진료팀은 질병의 진행 정도,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 심지어는 환자의 생활 방식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요구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지막으로 다학제 진료는 협력적인 관리를 통해 잠재적인 합병증을 예상하고 완화할 수 있어 환자의 치료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는 직장암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결정하여 환자의 치료 결과를 향상하고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장루 전문 간호사의 장루 관리 및 장루 교육을 통해서 장루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언제, 어디서나 사랑을 실천합니다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갈릴리회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명은 '사랑의 실천자로서 인류가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한다'이다.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1996년 4월  
'갈릴리회'를 발족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30년 가까이 갈릴리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 믿음으로 시작된

### 갈릴리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갈릴리회는 1996년 4월 30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교직원 중 22명의 기독교인이 모여 발족식을 했다. 한때는 150여 명을 넘을 정도로 큰 단체였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모든 활동이 축소되고 지금은 9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 구리지역 교회에서 진행하는 배식 봉사, 환자 돕기 바자회, 호스피스 공동체 방문 봉사, 겨울철 김장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로 대면 봉사를 일절 진행하지 못했다고.

갈릴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신순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간호국장은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은 컸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라고 전했다.

“저희 회비가 처음 발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3,000원이데요. 이 회비는 봉사활동 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했는데, 대면 활동을 아예 못 하니까 회비가 쌓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튀르키예 지진 모금 성금에 기부했습니다.”

갈릴리회는 십시일반,  
힘을 합쳐 타인을 돕는  
일에 진심입니다.

## 십시일반,

### 작은 정성이 모여 큰 나눔으로

추운 겨울 주차장에서 언 손을 녹여가며 진행하는 김장 봉사, 주말 이른 아침에 시작되는 배식 봉사 등 대부분의 활동이 업무 시간 외 진행되는 일이라 회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갈릴리회 회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나 혼자 힘은 보잘것없을지 몰라도, 갈릴리회 회원들의 힘을 모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면서 “갈릴리회 활동하면서 감사한 마음과 보람을 느낀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십시일반,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처럼 힘을 합쳐 남을 돕는 갈릴리회에 딱 알맞은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 봉사와 믿음생활에 저절로 스며들다

갈릴리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갈릴리라는 지역이 예수가 대부분의 종교활동을 전개한 곳이어서 병원 설립 정신에 맞춰 선교 활동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지어졌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과한 선교활동 등 종교색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이들의 반감을 살 수 있고, 종교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릴리회는 무리한 선교활동보다는 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한다.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내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하죠.”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아무리 마음이 있다고 해도 실천이 어렵고, 병원은 특히나 3교대 근무자가 많은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갈릴리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돕기 때문이다. 누구 하나 찡그린 사람 없이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얼굴에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느낄 수 있다.

## 오늘도 사랑을 실천합니다

미국의 비폭력주의 흑인 민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끈질긴 질문은 타인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한 것처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갈릴리회 회원들은 타인을 위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끈질기게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찾는 환자, 교직원들의 안녕과 병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 외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한다는 뜻이다.

신순교 간호국장은 “손길이 닿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이 있다면 주저 없이 행동하면서 큰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회적 책임감 또한 느끼고 있다”라면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처럼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한 순간, 즉각적으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늘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갈릴리회 회원들은 누구보다 발 빠르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울증의 중심 증상, 네트워크 분석으로 찾아낸다!



“동아시아 643명 환자의 우울 증상 네트워크 구조를 구현한 결과, 죄책감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피로 혹은 에너지 감소, 자살 사고 혹은 행동이 뒤를 이었다.”

학술지 『정신의학 및 임상 신경과학(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에 실린

‘Network analysis of the depressive symptom profiles in Asian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s: Findings from the Research on Asian Psychotropic Prescription Patterns for Antidepressants (REAP-AD)’ 중에서

### 머리가 아홉 개 달린 히드라! 우울증

우울증 진단 기준은 복잡하다. 미국정신의학회가 제정한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은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신질환 진단 기준이다. DSM-5는 우울증 진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체중의 감소 혹은 증가, 불면이나 과다수면, 정신운동 초조나 지연, 피로나 활력의 상실, 무가치감 또는 죄책감, 집중력의 감소 또는 우유부단함, 자살 사고 또는 자살기도 등 9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2주 연속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울한 기분과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2가지 증상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신병리학에서 ‘모든 길은 우울증으로 통한다’라는 비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필자는 우울증 진단 기준을 그리스·로마신화에서 헤라클레스가 물리친 ‘머리가 아홉 개 달린 히드라’라고 종종 비유한다. 본질에 대한 가정을 비트겐슈타인은 ‘일반적인 용어로 모든 실체를 포괄하려고 하는 경향, 일반화에 대한 욕망’으로 간주했다. 비트겐슈타인은 초월적 본질에 대한 가정에 맞서 인간이 사용하는 범주는 ‘가족 유사성’에 의해 생성되며, 끊임없이 그 경계가

변화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즉, 우울증이라는 진단 단위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에 결국 상응하는 것이며, 우울증 환자들은 신경생물학적 본질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유사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연구 도구를 활용하면 이토록 복잡한 우울증의 임상 양상에 대해 통상적인 관점이 아닌 새로운 견해를 제시해 줄 수 있다.

### 네트워크 분석으로 탐색한 우울증의 중심 증상

네트워크 의학은 알버트 바라바시라는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그는 비만의 병태생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질병 유전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세포 내 구성 성분의 세밀한 배선도를 그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증상은 기저질환의 결과물이 아니며, 증상 간 연관성이 질병 그 자체이다’라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증상학 연구에서 표준적인 생의학적 및 환원적 모형이 하향식 접근을 지향하는 반면에, 네트워크 분석은 상향식 접근

을 새로이 개념화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은 추정된 증상의 네트워크 구조를 검증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각 변수가 네트워크 구조의 적응적 기능에 대한 비례 혹은 반비례 정도를 판별한다. 그 결과,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보다 중심적인 위치에 놓은 증상은 그렇지 않은 증상에 비해 구조 자체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선 필자가 『정신의학 및 임상신경과학(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라는 학술지에 ‘아시아 우울증 환자에서 우울 증상의 네트워크 분석’ 제목하에 출판한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홍콩 등 아시아 10개 국가에서 1,174명의 우울증 환자의 우울 증상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추정하여 검증하였다.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로 지역별로 양분화하여 우울 증상 네트워크 구조를 추정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동아시아 643명 환자의 우울 증상 네트워크 구조를 구현한 결과, 죄책감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피로 혹은 에너지 감소, 자살 사고 혹은 행동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정신운동 초조 혹은 지체는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연결성 정도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남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531명 환자의 우울 증상 네트워크 구조를 구현한 결과, 우울한 기분이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고, 자신감 저하, 흥미나 즐거운 감소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정신운동 초조 혹은 지체는 네트워크 구조 내에서 연결성 정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차이로부터 기인한 문화적 차이가 아시아 우울증 환자의 우울 증상 네트워크 구조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울증 환자의 치료 목표는 우울증 진단 기준이 아니라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다”라는 임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위한 격언이 있는데, 우울 증상의 네트워크 구조는 그 격언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 증상을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항우울제 선택!

우울증은 신경생물학적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기보다는 ‘가족 유사성’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우울 증상에 대한 네트워크 구조 탐색은 우울증 증상 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증상 중심 항우울제 선택 알고리즘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증상 중심 항우울제 선택은 근거중심의학의 임상 적용에서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증상 중심 항우울제 선택은 근거 중심 접근에 따라 모든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치료 옵션을 적용하는 것보다 각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포트폴리오를 개별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향후, 네트워크 구조를 생물, 심리, 사회, 및 문화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로 구성된 위계적 형태로 구현한다면, 증상 중심 항우울제 선택 알고리즘은 더욱 정교해질 것이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은 임상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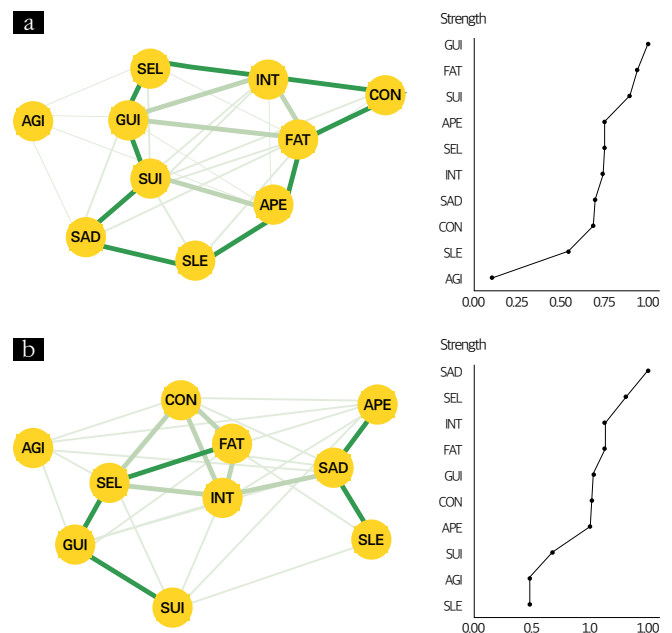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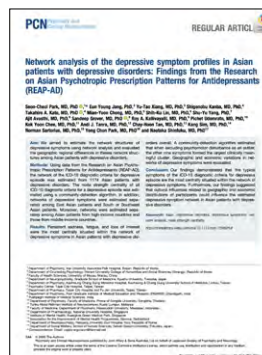
와 이론적 토대 중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룬 훌륭한 학문적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 연구는 故 김광일 교수님의 저서 『한국전통문화의 정신분석(교문사, 1991)』과 故 양병환 교수님의 저서 『정신병리학 총론(중앙문화사, 2010)』 및 『정신병리학 특강(집문당, 2017)』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Fig.2. Network structure and node strength centrality of depressive symptom profiles based on the geographic classification of Asian countries: **a** East Asian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n=643) and **b** South or Southeast Asian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 (n=531). AGO, agitated or slowed movements; APE, decreased or increased appetite; CON, poor concentration or indecisiveness; FAT, fatigue or low energy; GUI, guilt or self-blame; loss of interest or pleasure; SAD, persistent sadness or low mood; SEL, low self-confidence; SLE, disturbed sleep; SUI, suicidal thoughts or acts.



### Remarkable research



◀ Network analysis of the depressive symptom profiles in Asian patients with depressive disorders: Findings from the Research on Asian Psychotropic Prescription Patterns for Antidepressants (REAP-AD)

아시아 우울증 환자에서 우울 증상의 네트워크 분석



# 흡연자라면 더 주의해야 할 ‘후두암’

## 영화 <오펜하이머>의 실존 인물 오펜하이머의 후두암

실존 인물인 천재 과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오펜하이머>. 핵무기를 개발하는 맨해튼 프로젝트의 주도적인 인물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도 불린다. 그는 1965년 후두암 진단을 받고 2년 뒤인 1967년에 사망하였다. 그를 죽음으로 이끈 후두암이 무엇인지, 발병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천재 과학자이다. 독일 나치군이 먼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미국은 서둘러 ‘맨해튼 프로젝트’를 착수했고, 이를 오펜하이머가 이끌었다. 1945년 7월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성공했고, 한 달 뒤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종식됐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연구에 심취했을 때는 식사도 거의 하지 않을 정도로 몰두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입에서 담배 파이프나 껌초가 떨어지던 적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엄청난 애연가였다. 결국 그는 후두암에 걸려 사망했다. 오펜하이머를 죽음에 이르게 한 후두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후두암이란?



후두는 목구멍의 안쪽에 위치한 기관으로, 목소리를 만드는 성대와 아담 애플로 알려진 목 전방부의 모양을 만드는 연골인 갑상 연골을 포함하는 부위를 일컫는다. 후두는 폐에서 내보내는 공기의 흐름을 목소리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며, 음식물이 폐로 넘어가지 않게 후두덮개와 성대로 기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음식을 삼킬 때 후두를 거상시켜 음식물이 식도로 잘 넘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성대, 후두덮개 등에 생기는 암을 후두암이라 한다.

### 후두암의 원인



후두암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 요인은 흡연과 음주이다. 최근에는 흡연과 관련 없는 사람도 유두종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후두암이 증가하고 있다. 성대의 만성 염증, 백반증, 만성 위산 역류도 후두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후두암은 전체 암 발생의 5% 미만이며, 구강암, 식도암, 폐암과 동반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후두암의 증상

후두암은 성대에 암이 생긴 경우 양측 성대의 접촉이 잘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쉬는 '애성' 증상이 생긴다. 애성이 2~3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필수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후두암의 진행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후두암이 진행되는 경우 후두암의 크기가 커져서 숨을 쉬기 어려운 기도 폐쇄 소견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삼킴 장애가 생기거나 액체류를 마실 때 흡인이

생겨서 폐렴이 생길 수 있다. 후두암이 목의 림프절로 전이되는 경우 목에 단단한 멍울이 생기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암이 지속되는 경우 체중 감소, 피가 섞인 가래, 지속적인 기침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 후두암의 진단

후두암은 성대 부위를 포함한 후두를 검사하기 위해서 후두 내시경이나 후두 스트로보내시경 검사를 통해 모양을 보고, 전신 마취를 통해 혹을 일부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병리를 통하여 진단하게 된다.

후두암의 침범 부위를 평가하기 위해서 컴퓨터 단층 촬영(CT)과 자기 공명영상 검사(MRI)를 시행해야 하며, 몸 전체에 원격 전이가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PET-CT를 촬영한다. 후두암은 원발부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목의 림프절로의 전이를 확인해야 하며, 이는 초음파와 CT로 평가한 뒤, 얇은 바늘로 흡입하여 림프절에 암이 전이되었는지 평가한다.




### 후두암의 치료

후두암의 치료는 크게 수술로 암을 제거하는 방법과, 방사선 치료로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은 구강 내로 레이저나 로봇을 이용하여 암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으며, 목에 절개를 넣어 수술하는 방법이 있다. 수술은 범위에 따라서 후두암이 있는 원발부위와 목의 림프절을 제거하는 두 가지의 수술을 함께 시행해야 할 수 있다. 방사선 치료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약 30회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병기가 진행된 경우, 방사선 치료와 항암 약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항암 방사선 동시 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 후두암 치료 후 관리

후두암을 치료한 후에는 주기적으로 후두 내시경을 시행하여 재발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림프절에도 전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CT와 MRI를 검사하여 내시경이 진단하지 못하는 부위까지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간접흡연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재발을 줄일 수 있다. 

## 지역주민을 위한 ‘고혈압, 당뇨병’ 밀착케어

한양대학교병원 협력기관 /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서울시 성동구는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만성질환으로 자리 잡은 고혈압, 당뇨병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10년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성동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서울시 유일한 센터이기에 만 30세 이상의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든지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센터에 등록하여 건강 상담, 진료 및 누락 일정 안내 등 개인별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서울에 단 한 곳, 무료 교육 및 검사 진행

2013년 1월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에 고혈압과 당뇨병을 관리하는 센터가 문을 열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질환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며, 최근 들어 20~30대 환자도 많아지고 있어 만성질환으로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다.

“2007년 대구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확장된 사업입니다. 서울에 하나밖에 없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한양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이자,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동선 센터장의 말이다. 전국에는 19개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있다. 그중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10년 동안 지역 내 등록관리 사업 지정의원 71개 곳과 연계해 운영하면서 쌓인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지정 의원에서 당뇨병 진료를 받고 환자가 등록 의사가 있을 시 등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등록 된 환자를 관리 및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성동구민이라면 누구라도 센터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당뇨병과 고혈압 합병증에 대한 교육, 자가 혈압 측정 및 자가 혈당 측정 실습 교육, 운동 교육, 영양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된다. 그뿐만 아니라 혈압 및 혈당 검사는 기본, 등록 환자에 한해서 고혈압 환자는 콜레스테롤 검사를,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 성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김동선 센터장은 “최근 들어 젊은 층들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현재 센터에 등록된 환자가 1만 5500 명인데 이 중 1만 5000명이 만 65세 이상입니다. 65세 이상은 등록 시 지정 의원 진료비 할인 혜택이 실질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으로 센터에 방문해서 열심히 교육에도 참여하시고 진짜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가장 문제는 만 30~64세 이하 환자들인데요,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해서 치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도 본인이 당뇨, 고혈압인 줄 모르거나, 알지만 귀찮아서 미루고 방치하는 환자들 많이 있어서 안타깝죠. 이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당뇨병은 약을 먹어 치료하기만 쉽지 않다. 30% 정도만 혈당이 유지되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과 식이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 꾸준함을 위해서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가 존재하는 것이다. 김동선 센터장은 “센터에 등록만 하면 집중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환자분이 오래

병원을 안 가시면 전화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치료받으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교육을 받으록 하고 교육을 받으시면 선물도 드리고요(웃음). 이렇게 지역사회 기반의 의원을 중심으로 이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에 귀찮다고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 한양대학교병원과의 긴밀한 관계

3년 전부터 한양대학교병원과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센터에서 고혈압, 당뇨병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밀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센터에서 한양대학교병원으로 빠른 연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동선 센터장은 앞으로도 한양대학교병원과 함께 성동구민들의 고혈압·당뇨병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보건 증진을 목표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12

금호분소 4층

문의 02-2038-3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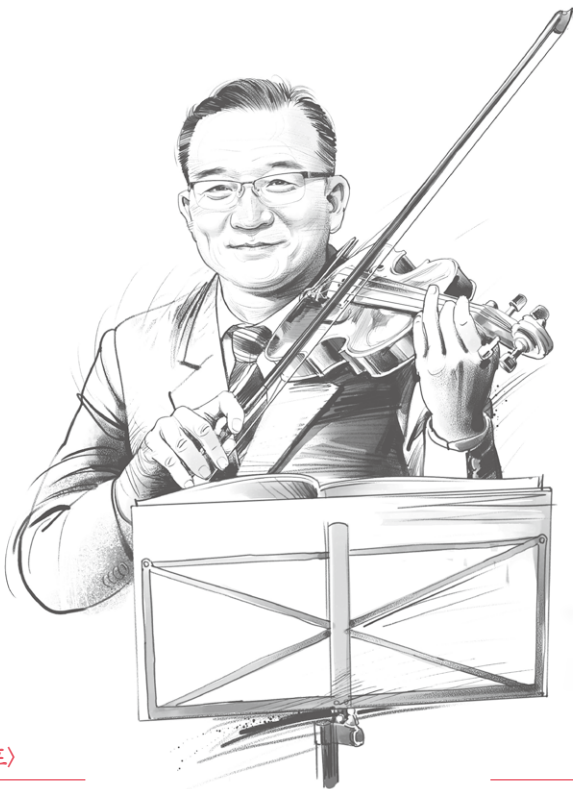


## 인간이 지니는 고뇌의 무게를 묵직하게 표현한 오페라



모데스트 무소르스키 오페라 <보리스 고두노프>

Modest Mussorgsky Opera <Boris Godunov>



<보리스 고두노프>는 푸시킨의 동명의 희곡을 바탕으로 무소르스키가 작곡한 전 4막의 오페라이다. 1871년 완성하였지만, 극장 측에서는 오페라의 꽃인 프리마돈나가 없다는 이유로 상연을 거부했다. 우여곡절 끝에 1874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했지만, 비평가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프로그램에서 삭제되었고, 그 후 1908년 립스키 코르사코프가 개작한 판본 등 여러 시도 후 러시아 특유의 장대한 선율과 음울한 분위기와 함께 투박한 화성과 강인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충분히 발휘된 러시아 국민주의 오페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표현주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0세기 서유럽 음악의 새로운 경향을 예고하고 있다.

무소르스키 음악의 가장 큰 특징은 아리아에서 나타난다. 그는 러시아어의 억양을 그대로 살려서 노래에 담고 싶었다. 그래서 러시아어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만의 고유한 특징과 느낌을 잘 살린 자신만의 작곡법이 무소르스키의 전매특허가 되었고, 이는 고두노프의 극적인 인간미를 한껏 표현했다. 거기다 무소르스키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특유의 묵직하고 어두운 톤은 보리스 고두노프의 죄책감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다. 그가 이 오페라를 작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점은 역

사적인 사건들보다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인물의 심리 상태였기 때문에 주인공 보리스 고두노프의 깊은 심리적 통찰이 돋보이고 있다.

이 오페라는 어둠 속에서 시작하여 그보다 더 암흑 속에서 끝난다. 모든 것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듯, 그곳에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등장인물들의 희망은 서로 상충하여 그 희망조차도 환영에 지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지속되며 머지않아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죽게 될 것이다. 선왕인 이반 선제의 왕위 계승자였던 어린 드미트리야가 변사한 이후, 그 주변이 당시 섭정을 하던 보리스 고두노프라는 소문이 무성하게 돌린다.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민중의 침묵은 보리스 고두노프의 부정한 권력 창출을 비판하고 있었다. 민중을 대변하여 보리스의 살인 교사를 비판하는 인물은 늙은 수도사 피멘이다. 러시아 민중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현명함과 우매함의 이중적인 극단으로 치닫는다. 가짜 드미트리의 배후 세력은 애인 폴란드 총사령관의 딸 마리아 므니셰크와 가톨릭 예수회 사제 란고니로 권력을 향한 욕망으로 차 각각 러시아의 황후와 정교회의 개종을 꿈꾼다. 그러나 부당한 권력인 보리스 고두노프 먼저, 그 후 위정자 그리고리가 민중의 심판으로 비극의 종말을 맞이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민중의 운명. 고두노프의 잠시 눈먼 선택

##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 클래식501>이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 들을 만한 ALBUM



니콜라이 가우로프(고두노프),  
우도비치 스피에스(그리고리),  
마르티 탈베라(피멘),  
가리나 비쉬나프스카야(마리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Decca, 1970)



알렉산더 페더니코프(고두노프),  
블라디슬라프 피아프코(그리고리),  
브라디미르 마토린(피멘),  
마리나 아프키포바(마리나),  
블라디미르 페도세예프(지휘),  
USSR TV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Philips, 1983)



마르티 탈베라(고두노프),  
니콜라이 게다(그리고리),  
레오나드 모로츠(피멘),  
보체나 키나츠(마리나),  
예르쥬 셰르코프(지휘),  
폴란드 라디오 방송 국립 오케스트라(EMI, 1977)


의 결과, 절망의 나락은 깊고 깊다. 굶어 죽어가는 불쌍한 러시아 민중  
이여!

**프롤로그 1598년 모스크바 노보디예비치 수도원 마당** 권력의 힘으로  
동원된 민중은 보리스 고두노프가 왕위에 오르기를 기원한다. 그들의  
눈물 연기는 극히 회화적으로 묘사된다. 이에 대해 수도원에 침거하는  
고두노프는 즉위를 수락하고 크렘린 광장에서 대관식을 거행한다.

**제1막 수원 내부** 수도사 피멘이 연대기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상념을  
노래한다. 젊은 수도사 그리고리는 그에게서 ‘황제 보리스 고두노프가  
드미트리를 살해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리고리는 죽은 드미트리로 변  
장하고 정의의 심판을 하리라 다짐한다. 한편 여행 중이던 방랑 수도승  
바를람과 미사일은 리투아니아 국경 근처 여관에 머물고 있다. 이들을  
통해 그리고리는 리투아니아로 가는 길을 알아 그곳으로 향한다.

**제2막 크렘린궁** 보리스의 딸 크세니아가 죽은 약혼자 때문에 상심해서  
울고 있다. 보리스는 선왕의 황태자 드미트리를 죽인 일로 극도의 불안  
과 심적 고통 속에 시달린다. 이때 귀족회의에 슈이스키가 찾아와 “드  
미트리를 사칭하는 자가 폴란드군과 손을 잡고 모스크바를 공격하려  
한다”라고 보고하자, 보리스는 드미트리의 환영을 보고 괴로워한다.

**제3막 폴란드 신도미에 시의 궁** 예수회 사제인 란고니는 러시아 정교를  
로마 가톨릭교회로 흡수시킬 것을 마리나에게 강하게 설득하고 있다.  
그녀는 드미트리를 사칭하고 있는 그리고리와 결혼하여 러시아 황후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자자 드미트리에게  
마리나는 “나는 사랑보다는 러시아 황제의 자리를 원한다”면서 일부러  
드미트리의 자존심을 자극해 출정하게 한다.

**제4막 러시아 크로미 근처 숲속 빈터** 바를람과 미사일이 “악마 보리스  
를 타도하고 정통 황태자 드미트리를 즉위시키자”라며 민중을 선동하  
고 있다. 한편 크렘린궁에서는 귀족회의가 폴란드군을 이끌고 이미 모  
스크바의 코앞까지 진군해 온 드미트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이 자  
리에 착란상태의 보리스가 공포에 질려 들어온다. 수도사 피멘이 ‘드미  
트리 황태자의 무덤을 참배하고 기적으로 눈을 뜬 어떤 장님의 이야기’  
를 들려준다. 이에 보리스는 충격을 받아 괴로워하며 아들 표도르를 불  
러 그를 새로운 황제로 천명하고 숨을 거두며 막을 내린다. 



## 기억은 언제나 정확할까, 추억은 언제나 행복할까

내 인생의 영화 93



국회의원을 하던 친구(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했다) 얼굴도 볼 겸 나갔던 이후로 실로 오랜만의 고등학교 동기 모임. 한참 전 동기회 총무가 내게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로 나에 대한 과대망상(내가 명이라는 착각)을 가지던 중 내가 병원 보직을 맡게 되자 여기저기 광고를 하고 다녀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참석하게 됐다. 고등학교 졸업이 1985년도이니 졸업 후 처음 보게 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서 이름은 대강 기억나는데 얼굴은 가물가물해서 매칭되지 않아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임이 되고 말았다. 이런 때는 대개 과거 기억을 공통 분모로 대화를 풀어가게 된다.

재미있는 것은 이야기를 이어가던 중 과거의 일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자율학습 시간에 3층에서 수로관을 타고 내려가다가 떨어져 응급실로 갔던 불한당(겁스하였지만 늠름하게 체대에 갔다)을 나로 기억한다던가, 같은 캠퍼스를 쓰던 대학의 축제 기간 중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 교무실로 불러 갔던 친구를 나로 기억한다던가(나는 결단코 안 걸렸다) 등등. 아마도 고3 내내 농구장에서, 오락실에서, 그도 아니면 대학교 정문 앞 카페(그냥 거기란 곳)에서 보던 얼굴이었으니 그 정도의 잔잔한 사고쯤은 달고 다녔을 것이라 짐작하는 건 아닌지 싶었다. 역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라.

기억(記憶)은 사전적으로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 냄' 혹은 '사물이나 사상(事象)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정신 기능'이라고 가치중립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추억(追憶)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함'으로 정의되었는데, 결국 추억이란 비교적 객관적인 기억의 영역 중에서 자신의 기준으로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낸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런 점에서 기억은 항상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된다. 법정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답변하는 피의자를 보면 과연 그의 기억이 정확할 것인지 의문이 들곤 한다. 반면 무미건조한 과거사를 제외한 양극단의 기억들은 추억이라는 이름 아래 매우 좋거나 아님 아주 나쁘거나 둘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첫사랑을 실존하지 않는 천상의 존재(과랑새라고 부른다는지)로 인지해 4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아직도 만난 날짜를 기억하는 골빈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끔 구타했고 그보다 더 자주 오프 때 집에 보내주지 않았던 일들로 인해 전공의 선배를 좋은 기억은 없는 악의 화신으로 기억 한편에 위치시키기도 한다.

자신의 의지로 나뉘었던 기억을 소거시켜 순행성기억상실증이란 질병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멘토, 2001>에서는 영화 내내 컬러와 흑백을 오가면서 반복되던 혼란스러웠던 영상이 결국 자신



##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사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용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 착각과 선택적 기억제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아차리는 데에는 상당 시간이 걸렸다. 아내를 죽인 범인을 찾아야 하지만 10분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기억력장애 때문에, 온 몸에 실마리가 되는 큐를 타투로 치장한 남자는 결국 자신이 아내를 죽인 죄책감과 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범인을 찾아야 했다. 영화는 나의 존재 의미를 만들어 내는 기억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데 사람이 앞으로 걸어가려면 발걸음을 내딛는 뒤꿈치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주인공의 “한 일은 기억나지 않지만 할 일은 안다”와 대조되는 모텔 주인의 말 “한 일은 기억나는데 할 일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중에서 과연 누구의 삶이 멈춰져 있는지 고민해 볼 일이다.

사랑에 실망한 사람은 사랑이 아니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없다. 사랑으로 인한 아픈 기억을 지우기 위해 기억을 삭제해 주는 회사를 찾아 연인 클레멘타인과 함께했던 지도를 만들어 하나씩 지워나갔던 조엘은 기억보다 더 강한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 손을 들고 만다. **《이터널 선사 인, 2005》**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끝났으나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운다. 기억을 먼저 지우길 원했던 사람은 여자였고, 남자는 그녀에게 실망하여 곧바로 그녀를 지우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뽕뽕 열어 불은 찰스강에 누워 별을 보던 낭만적인 순간의 기억 삭제는 저항을 만난다. 이 부분은 기억이 아닌 추억이란 이름으로 불리겠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기억에서 지워졌지만, 같은 방식으로 조우하여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제 그들은 회피하지 않는다. 영화 속에서 회사 직원 메리는 “망각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잊기 때문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읊는다. 원장을 사랑한 메리는 불륜에 괴로워하여 스스로 기억을 지웠지만 그 사실을 망각한 채 또 그와 입맞춤하게 된다. 사랑이란 의지로 꿀을 수 있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그 앞에 서면 다시 끌리게 된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되는 모양이다.

과거의 기억과 개성을 버리고 전쟁, 차별, 가난, 고통 없이 모두가 균일하게 행복한 인위적인 시스템인 ‘커뮤니티’는 빅 브라더처럼 모든 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당한 채 18세가 되면 수석 장로에 의해 미래의 직무를 부여받게 된다. **《더 기버 기억전달자, 2014》**는 행복이란 추상적 개념은 평균값으로 주어질 수 없는 개성 넘치는 가치임을 보여준다. 조너스는 기억보유자로 임명되어 이전 기억전달자인 더 기버로부터 넘치는 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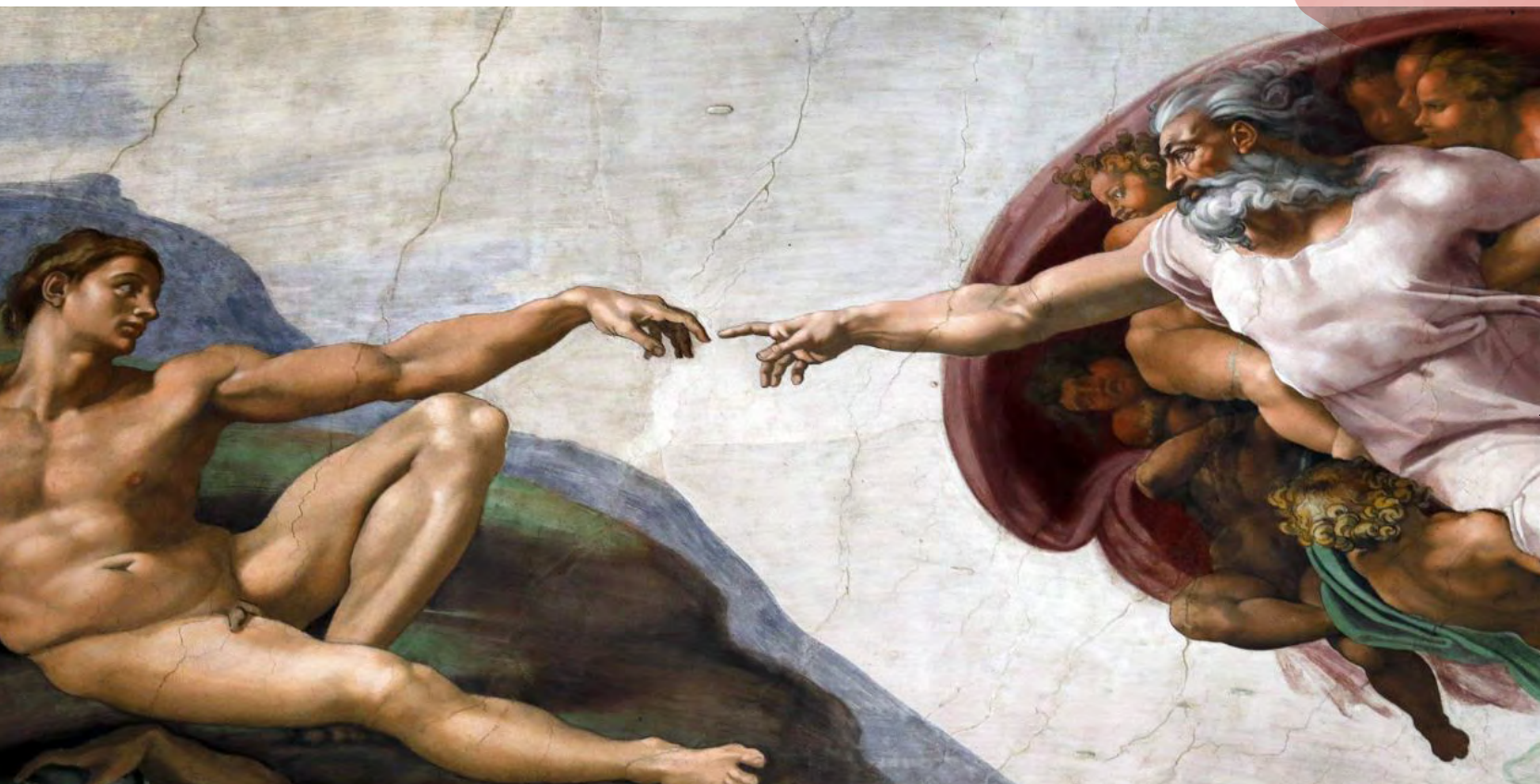
의 기억을 전달받게 된다. 흑백으로 잔잔히 흐르던 화면은 회열과 감동으로, 때로는 걱정으로, 아니면 절망과 공포로 채색된 컬러화면으로 바뀌게 된다. 처음으로 눈썹매를 타게 되고 음악과 춤으로 서로 손을 잡고 입맞춤하게 되지만 폭탄과 총성으로 가득 찬 전장 역시 처음으로 접하게 된다. 무질서한 혼동 속이지만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는 알게 된다. 혼자서만 느끼게 되는 총천연색의 세계를 모든 이와 공유하고 싶었던 조너스는 임무해제(죽음)에 닥친 아기를 자전거에 채운 채 세계의 경계를 넘어서게 된다. 그 순간 ‘커뮤니티’는 흑백에서 원색으로 탈바꿈한다.

기억은 더듬을수록 행복할 수도 있고, 가슴을 죄일 수도 있으나 이 모두는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본적이고도 민주적인 토대일 것이다. 이상적이고 도덕적이며 형이상학적인 가치로만 움직이며 범죄, 욕설 등이 보이지 않는 TV 드라마가 있다. **《플레즌트빌, 1998》**은 감정이 배제된 미래의 이상향을 꿈꾸는 TV 속 흑백 드라마인데 주인공 남매가 들어가면서 색채가 더해진다. 감정에 충실해지며 형식보다는 내용을 찾게 되면서 집 앞의 흑백 장미는 비로소 빨간 제 빛깔을 찾게 된다. 마지막 장면 재판정에서 “세상에는 더 좋은 게 많습니다. 때로는 어리석고, 때로는 색시하고 위험하며 간단한 것들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잠재해 있습니다”라는 주인공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는 행복해지기 위해 잦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한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오후에 전화하시더니 요즘 너무 전화를 안한다고 하신다. 나와 가장 가까웠던 분이 그러신다. 연극을 영화화한 **《더 파더, 2020》**는 기억이 정리된 머릿속 서랍이 뒤죽박죽되어 버려 단편적인 삽화만 남게 된 앤소니 홉킨스가 종내 어머니가 보고 싶다며 요양원의 간병인에게 안겨 울음을 터뜨리며 끝을 맺는다. 본인의 기억에 자리한 인물들이 결국은 최근의 기억들로 대체된 병원 직원들이었던 셈이다.

“내 앞들을 모두 잃고 있는 것 같아.” 내 정체성을 이루던 기억들이 더 이상 정확해지지 않고 파편화가 될 무렵이 되어도 조각난 추억이 아름답게 느껴질까? 아니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더는 의연해지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아름답게만 각색되는 추억을 먹고 사는가 보다. LATTE IS HORSE.....

# 이탈리아가 낳은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 디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와**

**통풍** Gout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 건축가, 시인으로 르네상스 시기를 대표하는 인물 미켈란젤로 디로도비코 부오나로티 시모니(이하 미켈란젤로). 그의 재능을 알아본 메디치 가의 후원 덕분에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후 시에스타 성당 천장화, 대벽화, 피에타 등 대작을 남겼다.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를 완성할 당시 다리가 계속 붓고, 납중독에 걸려 통풍에 걸린 것으로 의심을 샀고, 동료 예술가들의 그림 속 미켈란젤로를 통해 무릎 부위에 통풍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를 고통에 빠트렸던 '통풍'에 대해 알아본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여 관절 내에 결정을 만들어 염증을 일으켜 관절염이 생기는데, 피부 아래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보이는 통풍 결절이나, 신장 결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통풍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질환이다. 통풍으로 인한 관절 통증의 특징은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발생하여 극심한 형태로 나타나며 새벽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할 정도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염증 반응이 소실되면서 통증이 호전된다. 여러 관절에 나타날 수 있지만 발, 첫 번째 발가락 관절에 흔하게 나타나서 제대로 걸기가 힘들고 작은 움직임에도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 왜 통풍이 발에 흔히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염증 발생의 원인이 되는 요산 결정의 형성이 온도가 낮을수록 잘 일어나고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은 체온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속적으로 물리적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에 추측하고 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증가하여 관절 내에 결정을 만들어 염증을 일으켜 관절염이 생기는데, 피부 아래 흰색이나 노란색으로 보이는 통풍 결절이나, 신장 결석이 발생하기도 한다. 통풍 급성기의 관절염 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콜히친, 비스테로이드소염제, 스테로이드 등으

로 치료하고, 증상이 사라지면 요산 저하제 치료를 통해 고요산혈증을 조절한다. 관절염 발생 빈도가 매우 드물거나 다른 신체 부위의 통풍 합병증이 없는 경우, 식이 요법이나 금주 등 비약물 요법으로 관리해 볼 수 있으나 관절염이 반복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관절 손상, 요로 결석, 통풍 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고요산혈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지속해야 한다.

통풍도 관절염이 반복되면 관절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진단하고 장기적으로 혈중 요산의 관리를 하여 관절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절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하다.

약을 복용하면서 혈중 요산 수치를 모니터링해 약의 용량이 적절한지 관리하고, 다른 부작용 발생을 확인하면서 복용한다. 또한, 통풍 환자에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잘 관리하고, 흡연, 음주와 같은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 척추 건강을 지켜준 내 삶의 은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오랜 시간 동안 허리 통증, 고관절 통증, 다리 저림을 겪으며 시도해 보지 않은 치료가 없다는 이정숙 님. 그녀는 친언니의 추천으로 박예수 교수님을 찾았다. 교수님을 만나 두 발로 서서 움직이고, 앉아서 업무를 할 수 있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 같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이정숙 님과 환자분의 긍정적인 마인드 덕에 경과가 좋아 함께 기쁜 마음이라는 박예수 교수의 이야기.





제 삶을 구해주신 은인, 박예수 교수님께



삶의 질이 바닥일 때 제 인생에  
황금 동아줄을 내려주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실 이정숙님께



언니에 이어 이정숙 님까지  
주치의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고관절 통증, 다리 저림 등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 지속해서 약물치료, 주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치료를 받는 그때뿐,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큰 언니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박예수 교수님께 허리 수술을 받고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기에 박 교수님께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었으나 섣뎡 교수님을 찾아오지 못했어요. 울산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을 내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더 아프기 전에 열른 박 교수님을 찾아뵙라는 언니의 강력한 추천,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언니의 모습이 결국 저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이끈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3년 5월 수술을 하고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진작 박 교수님을 찾아오지 않은 것이 후회될 정도로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을 받기 전에는 5분도 앉아 있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1~2시간은 거뜰히 앉아 업무도 볼 수 있고 조금씩 운동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박예수 교수님은 정말 제 인생에 황금 동아줄을 내려주신 은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울산에서 교수님을 뵈러 오는 그 시간에도 ‘교수님을 뵈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감사로 벅차오른답니다. 입원했을 때나 외래 때 질문을 쏟아내는 저에게 한 번도 귀찮은 내색하지 않으시고 다 답변해 주시며 밝게 웃어주시는 박예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만큼 교수님 건강도 챙기셔서 오래오래 저, 저의 큰언니,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척추 건강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정숙 드림**

멀리 울산에서 저를 믿고 내원하신 이정숙 님과의 첫 만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정숙 님과의 인연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처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 오셨을 때는 다분절에서 추간판의 변성이 심하고, 추간판 간격의 협소화로 척추후만증, 척추관협착증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몸 상태로 울산에서 어떻게 오셨지?’라는 걱정 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저에게 치료받기 위해 울산에서 오셨다는 말씀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생겼고요.

이정숙 님께서는 척추후만증 교정을 하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이고, 척추는 평생 사용해야 하는데, 선불리 대수술을 시도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가장 괴로워하시던 허리 및 하지 방사통의 주원인이 되는 척추관협착증만 치료하는 최소한의 수술만 진행하였습니다. 제4~5번 요추간 감압술과 고정술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좋아 저도 기쁜 마음입니다.

울산에서 오시는 길이 쉽진 않고, 치료 중 불편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정숙 님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치료에 임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수술만 한 것이기 때문에 후만증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 무리가 되는 일은 하시면 안됩니다. 아울러 반드시 매일 10~20분씩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언니에 이어 이정숙 님까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매사 긍정적인 모습으로 잘 관리하신다면 오랫동안 건강한 척추를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건강하세요~🙏

**박예수 드림**



##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23년 8월 ~ 9월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이석 교수**  
고관절을 지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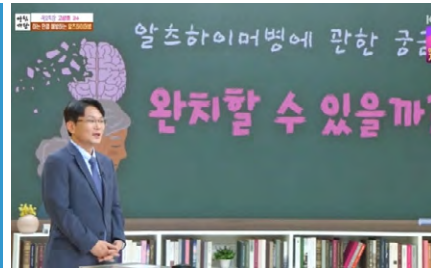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희진 교수**  
치매 예방 두뇌 활용법



**KBS 생생정보 김용성 교수**  
치매 조기 진단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장성호 교수**  
나잇살을 잡아라



**KBS 아침마당 고성호 교수**  
알츠하이머병



**SBS 모닝와이드 김인향 교수**  
백색소음



**SBS 모닝와이드 박진석 교수**  
백색소음



**YTN 뉴스 박계영 교수**  
연휴 심장 증후군

### 한양대학교병원

**김이석 정형외과 교수** KBS [건강365]/ 8월 1일/ 고관절치환술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9월 18일/ 내 몸을 지탱하는 생명 주춧돌 고관절을 지켜라! **이창화 신장내과 교수** KBS [건강365]/ 8월 4일/ 만성콩팥병 **김용성 신경과 교수** KBS [생생정보]/ 8월 8일/ 땅콩버터로 치매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다/ SBS [모닝와이드]/ 9월 6일/ 수상한 소문 카페인 **최성훈 정형외과 교수** KBS [건강365]/ 8월 9일/ 거북목증후군 **손준혁 소아외과 교수** KBS [건강365]/ 8월 11일/ 충수염 **박현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MBC 뉴스/ 8월 16일/ 보건의료정책심의회 올해 첫 회의... "전문위 구성해 의사인력 확충 추진"/ YTN 뉴스/ 8월 17일/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 논의 시작 **임승원 치과 교수** KBS [건강365]/ 8월 17일/ 교정치료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KBS [건강365]/ 8월 24일/ 간경변증 **김희진 신경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월 24일/ 커피, 마실까? 끊을까? 카페인의 경고/ 9월 13일/ 치매 예방 두뇌 훈련법/ KBS [건강365]/ 9월 30일/ 파킨슨병 **김연환 성형외과 교수** KBS [건강365]/ 8월 30일/ 당뇨 발 **이원준 안과 교수** KBS [건강365]/ 9월 1일/ 녹내장 **최규선 신경외과 교수** KBS [건강365]/ 9월 6일/ 뇌동정맥기형 **윤재훈 소화기내과 교수** KBS [건강365]/ 9월 7일/

담석증 **박진석 신경과 교수** KBS [건강365]/ 9월 14일/ 하지불안증후군/ SBS [모닝와이드]/ 9월 20일/ 수상한 소문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백색소음? **김인향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9월 20일/ 수상한 소문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백색소음? **고주연 피부과 교수** KBS [건강365]/ 9월 21일/ 아토피 피부염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장성호 재활의학과 교수**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8월 16일/ 혈관, 심장, 뇌를 망가뜨리는 나잇살을 잡아라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KBS [건강365]/ 8월 27일/ 조현병 **고성호 신경과 교수** KBS [아침마당]/ 9월 21일/ 아는만큼 예방하는 알츠하이머병

### 한양대학교국제병원

**박계영 국제진료센터 교수** YTN 뉴스/ 9월 28일/ 차례 음식, 덮어놓고 먹다보면... "연휴 심장 증후군 조심하세요"

2023년 8월 15일(화)

**한국일보**

**이상적 배변은 주 3~5회... 수분·음식 충분히 섭취해야 변비 예방**

배변 주 3~5회, 배변 후 변이  
결핵을 수습하여 변비 예방  
교정해주는 '신설 노약자  
배변 주 3~5회, 배변 후 변이  
결핵을 수습하여 변비 예방  
교정해주는 '신설 노약자  
배변 주 3~5회, 배변 후 변이  
결핵을 수습하여 변비 예방  
교정해주는 '신설 노약자

**NEWS**

2023년 8월 21일(월)

**The JoongAng**

**철분제와 유제품 같이 먹지 말고, 엽산은 임신 3개월 전부터 섭취**

임신 3개월 전부터 엽산 섭취  
철분제와 유제품 같이 먹지 말고  
엽산은 임신 3개월 전부터 섭취

**NEWS**

2023년 8월 22일(화)

**한국일보**

**"간암, 갑염 우려 없는 '무수혈 절제술'... 후유증 적고 회복**

간암, 갑염 우려 없는 '무수혈 절제술'... 후유증 적고 회복

**NEWS**

2023년 8월 29일(화)

**The JoongAng**

**도 아픈' 통풍, 달콤한 음료부터 줄여라**

통풍, 달콤한 음료부터 줄여라

**NEWS**

**한양대학교병원**

**박성철 비뇨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8월 3일/ 물먹듯 '아아' 마셨다간 피 본다  
**이관석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8월 5일/ 흥기난동병, 일반인과 뇌 구조  
다름까?/ 8월 7일/ "정신질환 인권 찾다" 범치 늘었다/ 8월 9일/ 정신질환 '악'도  
없는 극한대립/ 머니투데이/ 8월 11일/ 교사를 '딱' 책임 빠진 학생인권/ 서울신문/  
8월 16일/ 조현병 100명 중 1명꼴 **이봉근 정형외과 교수** 아시아투데이/ 8월 8일/  
'키 크는 운동' 영상 관심 **오재훈 응급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 8월 10일/ 심정지 경험자, 우울증 관리/ 매일경제/ 9월 1일/ '금성심정지' 24시  
간 전 예고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선일보/ 8월 10일/ 조현병 이기지 못하  
고 외로이 떠났다/ 머니투데이/ 9월 9일/ 마오쩌둥, 난잡한 성관계 부른 '불안장애'  
**김인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8월 13일/ ADHD 진  
료 어린이·청소년, 4년 새 82% 늘었다 **이향락 소화기내과 교수** 한국일  
보/ 8월 14일/ 이상적인 배변은 1주일에 3~9회/ 머니투데이/ 9월 19일/ 대  
장 내시경은 5년에 한 번? **박세운 감염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8월 16일/ 일  
반 모기 '말라리아 모기' 다른 점?/ 8월 18일/ 남성 3명 중 1명은 걸렸다/ 서  
울신문/ 9월 18일/ 매독, 방치하면 합병증 유발 **박정환 내분비내과 교수**  
**머니투데이/ 8월 17일/ "영수증 땀" 이 말이 내 건강 지킨다?/ 8월 29**  
**일/ 中탕후루, 과일이라 괜찮다?/ 9월 30일/ '20대 몸매 그대로'가 대단한 이**  
**유 김희진 신경과 교수** 동아일보/ 8월 17일/ '멍 때리기' '긍정 확인' 해보세  
요/ 한국일보/ 9월 20일/ 벌써 치매 환자 100만 명 치료약 속속 개발 **임한웅**  
**안과 교수** 조선일보/ 8월 17일/ 외사시 앞면 천재 화가/ 파이낸셜뉴스/ 9월 19일/  
소아 실명 부르는 질환 **차치환 외과 교수** 한국일보/ 8월 19일/ '고령 유방암' 두려  
워하지 말아야 **최정규 산부인과 교수** 중앙일보/ 8월 21일/ 예비맘, 변비 방지, 이 병  
걸린다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일보/ 8월 21일/ 사법법원제 이대로 도입  
땀 '입원실 땀땀' 머니투데이/ 9월 2일/ 히틀러 몰락 부추긴 마약 중독/ 9월 4일/  
1020 마약 중독 급증 **김정은 피부과 교수** 중앙일보/ 8월 22일/ 건선, 방치하면 관

절 변형 **김경식 외과 교수** 한국일보/ 8월 22일/ 간암, 갑염·면역 반응 우려 없는 '무  
수혈 간절제술'로 치료 가능 **조정기 비뇨의학과 교수** 스포츠조선/ 8월 25일/ 성관  
계 0번=성기능 0점, '말 안돼' '디지털 발기능 측정' 나선 의사 **황규태 정형외과 교수**  
동아일보/ 8월 26일/ 11번 수술 견디고 등산이 더 즐거워졌다 **고주연 파부과 교수**  
서울신문/ 8월 30일/ 가벼운 일광 화상, 냉수 찜질하세요 **윤재훈 소화기내과 교수**  
국민일보/ 9월 4일/ 소변이 콜라색? 화장장 의식/ 서울신문/ 9월 6일/ 당뇨 악화 체  
장암일 수도 **주민수 피부과 교수** 머니투데이/ 9월 6일/ '통증의 왕' 골든타임 내 '김  
새' 찾아야/ 9월 7일/ 대상포진 합병증/ 9월 29일/ 팔이 멍투성이인데 '안 아파' '이  
것' 의심해야 **이원준 안과 교수** 서울신문/ 9월 12일/ 녹내장 40세 이후 검진 필수  
**김인아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국민일보/ 9월 18일/ "선생이 사과해" 말하는 교장·  
교감이 더 많다 **한지영 치과 교수** 서울신문/ 9월 20일/ 심장병도 부르는 치주질환  
**안병구 외과 교수** 서울신문/ 9월 27일/ 배변은 반드시 5분 이내로 **박훈기 가정**  
**의학과 교수** 머니투데이/ 9월 29일/ '벌보다 사람이 더 빨라' 무조건 뒤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동수 소화기내과 교수** 동아일보/ 8월 2일/ '잼버리' 이런 질환 조심하세요 **최준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아주경제/ 8월 6일/ '문지마 흥가사건'에 부실시공 아파트/ 헤  
럴드경제/ 8월 7일/ '문지마 범죄' 중앙일보/ 8월 17일/ 장기 지속형 주사제 등으로  
조현병 치료 지속성 높아야 **박선철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국일보/ 8월 21일/ 기억  
해 년 정량 최고치 10년 쯤/ 9월 16일/ 한국일보/ 추위 따윈 두렵지 않다네 **정진혁**  
**이비인후과 교수** 머니투데이/ 8월 22일/ 귀에 물 '갑갑' 면병으로 후벼탄다 **최호진**  
**신경과 교수** 한국일보/ 9월 20일/ 바닥 땀굴에 쥐 들끓는 방 방치된 치매 독거노인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전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한국일보/ 8월 29일/ 통풍, 한 해 50만 명 넘게 앓아



# HANYANG NEWS

2023년 9월 ~ 10월

## 한양대학교병원

### 빠르고 안전한 인터벤션실 확장 개소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9월 1일 인터벤션실 확장 개소식을 열었다. 이번에 확장 개소한 '인터벤션실'에는 최첨단 디지털 혈관 조영장비가 설치되어 혈관 이상 유무 진단뿐만 아니라 혈관치료와 시술에도 사용된다. 이승훈 영상의학과장은 "인터벤션 분야는 복부혈관, 폐혈관, 사지혈관의 중재술과 혈관 이외 병변에 대한 중재술, 뇌혈관 중재술, 척추통증 시술, 조직 검사 등의 시술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고, 현재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며 "각종 혈관질환 뿐만 아니라 농양배출, 흉부·척추 조직 검사 등의 비혈관성 질환 환자들에게 빠르고 안전한 검사와 시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장기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한양대학교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지난 9월 15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장기이식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장기이식센터장 최동호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교수는 "본원 장기이식센터는 국내 장기이식 발전에 초석을 다져왔고, 장기이식의 선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라며 강좌를 열었다.

### 대장암의 달 기념 건강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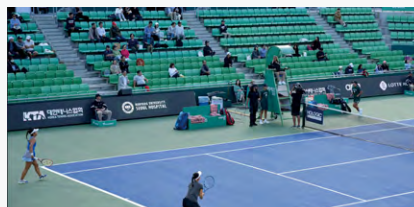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9월 21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대장암의 달'을 맞이하여 대장암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박성실 대장항문외과 교수가 '쫄쫄쫄쫄 변실금', 안병규 대장항문외과 교수가 '궁금해요 대장암'을 주제로 대장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 데이터심의위원회 & 의료정보연구센터 공동 심포지엄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5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데이터심의위원회와 의료정보연구센터 주관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정보관리위원장 김석기 정형외과 교수는 "본원 데이터심의위원회는 보건 의료데이터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권익보호와 데이터 처리자 및 연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코리아오픈 국제 테니스대회 공식지정병원 2회 연속 선정



한양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코트에서 열리는 코리아오픈 국제 테니스대회에서 2회 연속 '공식지정병원'으로 선정돼

의료진과 의료용품 등을 지원했다. 또한, 스포츠 손상 치료 전문가인 정형외과 이진규 정형외과 교수가 현장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응급치료를 진행하며,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최상의 경기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2023년 하반기 정년 및 명예 퇴임식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 8월 21일 본관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2023 하반기 정년 및 명예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형중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직무대행, 이승환 병원장, 이규용 부원장, 구선완 운영지원국장, 신순교 간호국장을 비롯해 주요 보직자와 많은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년 및 명예 퇴임자 모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 세포나 조직 등을 이용하여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세포·유전자치료 등을 수행하는 의료기술을 말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첨단재생의료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과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연구 수행 적합 승인을 획득했다.

### 2023 마음돌봄 캠페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는 지난



9월 4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병원 임직원과 내원객을 대상으로 '2023년 마음돌봄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관 1층에서 자살예방 설문 조사, 자살예방 서약나무 만들기, 자살예방 팸플릿 배포 등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의 다양한 자살예방 활동이 펼쳐졌다.

##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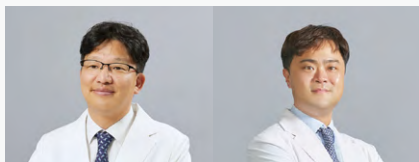
### 제12차 HUHRD 국제 심포지엄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지난 10월 19일 한양종합기술원(HIT) 6층 회의실에서 '류마티스질환 치료의 진전'을 주제로 '제12차 HUHRD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도한 유대현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연구와 치료 분야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는 류마티스관절염이나 루푸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염증성 근염이나 성인형스틸병의 연구는 더디게 발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치료법과 관리법 등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인물동정

### 김영서 교수와 김봉영 교수, 새만금 챔버리에 의료지원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영서 교수와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는 지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2023 새만금 제 25회 세계스카우트 챔버리'가 열리는 전라북도 부안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참가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지원을 진행했다. 특히 신경과 김영서 교수는 뇌혈관질환 전문의로 두통, 어지럼증 등과 온열질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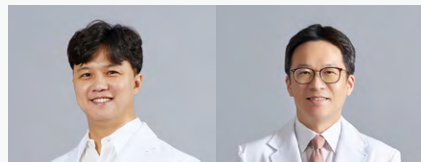
환을 비롯한 응급상황 시 긴급한 대처와 진료를,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는 공동취사와 합숙으로 감염병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 현장에서 전문 진료를 지원했다.



### 임한웅 교수, 미국안과학회지 『Ophthalmology』에 논문 게재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임한웅 교수는 미국안과학회지 『Ophthalmology』 9월호에 스탠퍼드 대학 Byers Eye Institute 소아안과 램버트 교수팀과 공동연구한 '미국 소아 실명의 원인'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 이상환, 고벽성 교수팀 대한임상독성학회 최우수연구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이상환, 고벽성 교수 연구팀이 지난 9월 15일 한양대학교 종합기술연구원(HIT)에서 열린 '2023 대한임상독성학회 학술대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의 장기 사망률 및 위험요인'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



### 김희진 교수, 한양대학교 LINC3.0사업단, 네이버클라우드와 공동연구 협약 체결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희진 교수(성동구치매안심센터 센터장)는 지난 9월 18일 네이버 1784사옥에서 한양대학교 LINC3.0사업단과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기술교류와 함께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뇌건강 AI전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박계영 교수, 대한가정의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한양대학교국제병원 박계영 교수가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와 파킨슨병 위험'이라는 논문으로 '우수연제발표상'을 수상했다.

### 오영하 교수, 원영웅 교수, 허준영 교수 『림프종 바로알기』 개정판 공동 저자 참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병리과 오영하 교수, 혈액종양내과 원영웅 교수와 허준영 교수가 대한혈액학회 림프종연구회에서 발간한 『림프종 바로알기』 개정판 집필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이번 개정판은 대한혈액학회 림프종연구회에 속한 전국의 100명의 전문가가 림프종이란 얘기를 듣고 자주하게 되는 질문들, 림프종의 세부아형으로 진단을 받은 후 품게 되는 의문들 등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내용이 수록됐다.



### 원영웅 교수,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정보완판 공동 저자 참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혈액종양내과 원영웅 교수가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에서 발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정보완판 집필에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 Hihy 건강저장소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2023년 9월 ~ 10월



Hihy 건강저장소 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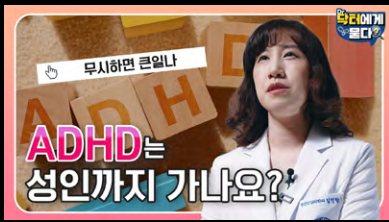
엄지은 교수 백혈병



이건석 교수 조현병



송창면 교수 갑상선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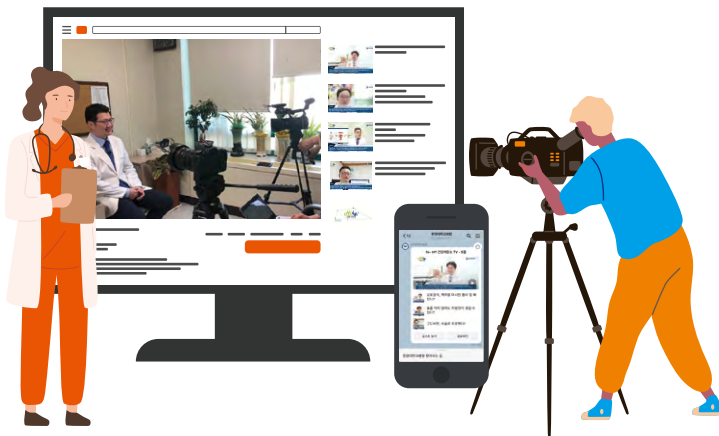
김인향 교수 ADHD



차치환 교수 갑상선암



전형준 교수 디스크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http://pf.kakao.com/\\_WxgaRu](http://pf.kakao.com/_WxgaR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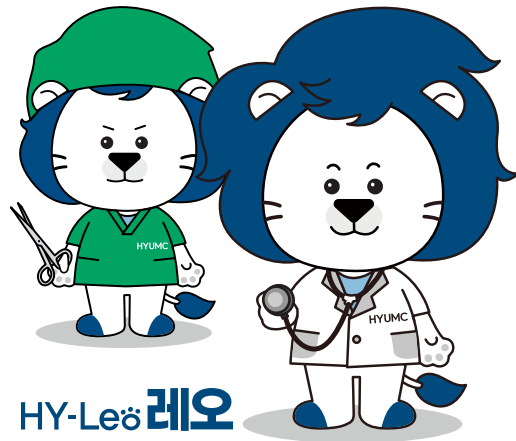
YouTube  
'한양대학교병원(HYUMC)'  
<http://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post.naver.com/hyumc-pr>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http://pf.kakao.com/\\_xlxbMku](http://pf.kakao.com/_xlxbMku)



HY-Leo 레오

## 한양대학교병원 포스트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 01 카더라통신 파헤치기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본 '카더라' 소문, 정말일까?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한양대학교병원 전문가가 명쾌한 해답을 알려드립니다.

### 02 건강 크리에이터

평소의 생활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바꿔드립니다. 행동 패턴, 식습관 등 나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 전문의의 조언을 들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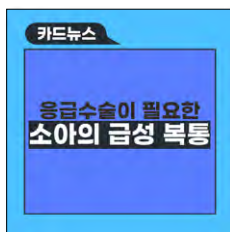
### 03 카드로 보는 건강 Tip

짧고 임팩트 있게! 한번 보면 잊지 않는 건강 정보를 직관적인 이미지와 함께 전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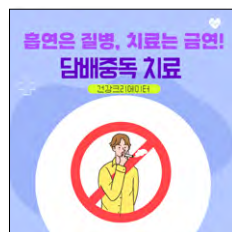
### 04 바로 아는 건강정보

건강이 궁금하다면 드루와! 증상, 질병, 원인, 치료방법 등 보다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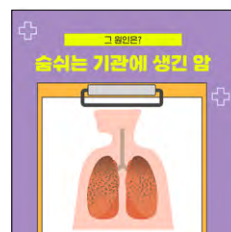
어떤 정보가 궁금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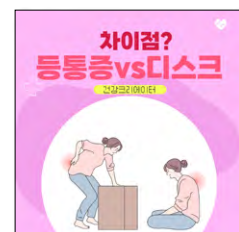
손준혁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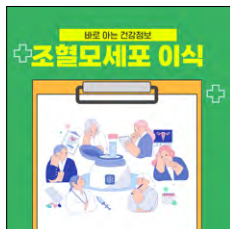
노성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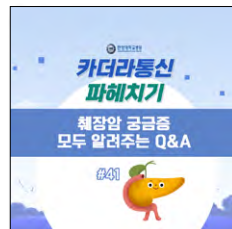
박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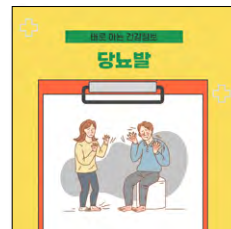
전형준 교수



엄지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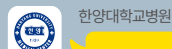
윤재훈 교수



장란숙 교수



박진화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하이하이 건강저장소 소식과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카카오톡 채널 구독하고  
질한 알아보기 & 나를 지켜주는 건강 특강을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한양대학교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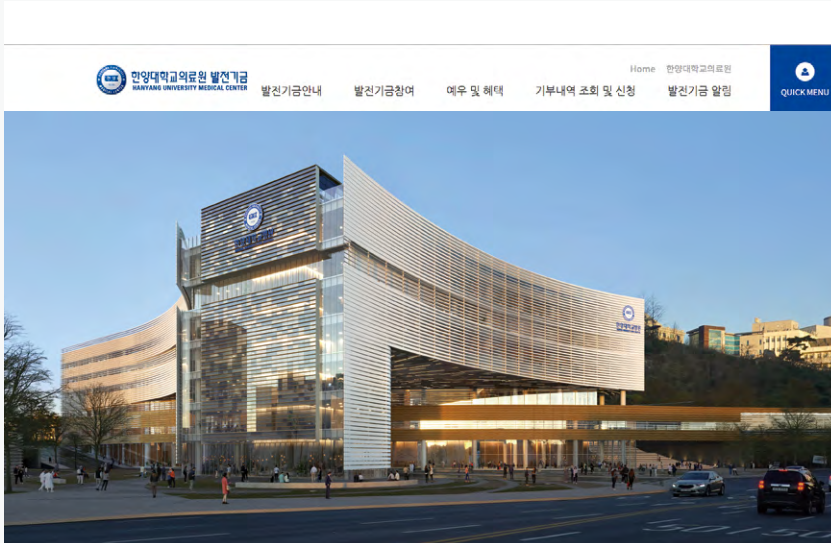
HiHy  
건강저장소



#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 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발전기금은 의료원의 발전을 지원하는 기부자님의 뜻에 따라  
인재양성, 연구개발, 학술지원, 환경개선 등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한양대학교병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미래를 함께하겠습니다!

미래의학을 선도할  
최첨단 스마트병원 신축에  
동행해주시요.



발전기금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을 아껴주시는 동문, 환자 및 보호자, 학생 및 학부모, 재단 가족 및 교직원,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 기부 분야

<b>인재양성기금</b> 우수 인재 발굴 및 교육지원으로 글로벌 인재양성	<b>학술지원기금</b> 활발한 학술활동 지원으로 의학발전 선도
<b>연구개발기금</b> 연구역량 강화로 스마트한 메디컬 허브 구축	<b>환경개선기금</b> 진료환경 개선으로 환자중심병원 실현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 기부 방법

#### 방법 1

#### 약정서 제출

- ▶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접속 후 약정서 다운로드 및 출력
- ▶ 약정서 내용 작성
- ▶ 대외협력실 팩스(02-2296-3806) 또는 이메일(hmcfund@hyumc.com)

#### 방법 2

#### 온라인 약정

- ▶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또는 QR코드 인식
- ▶ '온라인 기부' 클릭
- ▶ 약정 내용 작성 및 제출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발전기금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채널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기금과 관련한 다양한 소식 전달 및  
기부자님과의 1:1 소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가능합니다.



###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채널로  
연결됩니다!  (+채널추가)

# 기부자 명단

2023년 8월 ~ 9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차상석 (주)한일사료				
1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김경래 교수	민도식 씨제의료재단	오영하 교수		
50만 원 이상~1백만 원 미만	국은영 직원				
1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강창남 교수	강홍구 한양정형외과	고주연 교수	권오균 직원	김도윤 서울병원
	김명숙 직원	김명희 직원	김병제 김병제내과	김성재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김용호 김용호정신건강의학과
	김이석 교수	김자윤 해민정신건강의학과	김진녀 직원	김태완 홍익안과	김희수 수원제일정형외과
	박미숙 직원	박정하 직원	박진식 MS재건병원	박희철 서울정형외과	배근형 교수
	서정심 고객	성명순 직원	손유경 직원	손희중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신태양 부평힘찬병원
	심경아 직원	심지훈 양평병원	양현 직원	염상철 동문	이경석 교수
	이경섭 이경섭정신건강의학과	이규용 교수	이두연 서울병원	이봉근 교수	이성필 메디인병원
	이진규 교수	이창훈 교수	이희제 동문	정규성 교수	정승원 상쾌한이비인후과
	정우성 서울병원	정재홍 더정형외과	주일한 메디인병원	최경진 최경진정형외과	최성훈 교수
	최윤영 교수	최충혁 교수	최혁중 교수	한주희 한주희정형외과	황규태 교수
10만 원 미만	권난희 직원	권연희 직원	김나영 직원	김명환 직원	김소윤 직원
	김애경 직원	김춘애 직원	김희나 직원	문병임 직원	박경숙 직원
	박미숙 직원	박미옥 직원	박상혁 직원	박선영 직원	박유순 직원
	박지경 직원	박진희 직원	서혜영 직원	손진석 직원	신정미 직원
	안미경 직원	양미영 직원	염주일 고객	오기향 직원	오정님 직원
	오홍석 건양대학교병원	유혜경 직원	육수영 직원	윤향순 직원	음희재 직원
	이경철 직원	이미경 직원	이승건 서울병원	이의산 고객	이정희 직원
	이창우 선한목자병원	이현주 직원	임연희 직원	임지영 직원	전순아 직원
	진춘희 직원	최순익 고객	한경수 고객	황미현 직원	황희복 직원

• 하이하이건강저장소 구독하고 경품 받자! •

한양대학교병원

# 11월 유튜브 · 카카오톡 채널 구독 이벤트

1단계. 유튜브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구독 클릭!

2단계. 카카오톡 채널



한양대학교병원  
채널 추가 후  
인증샷 캡처!

3단계. 블로그 이벤트 게시물에

- ① 유튜브 핸들(고유아이디) 적기(@핸들)
- ② 캡처한 카카오톡 채널  
구독 인증샷 첨부하기
- ③ 한양대학교병원 인스타그램 구독 후  
아이디 적으면 당첨 확률 UP!
- ④ 비밀댓글로 달아주세요!



TIP

HiHy  
건강저장소

레오도 구독 완료!



이벤트 기간

2023년 11월 20일(월) ~ 12월 3일(일)

당첨자 발표

2023년 12월 11(월) 예정

당첨자 경품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스타벅스 카페라테(5천원 상당)



5명



70명



##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전화예약 : 02 - 2290 - 8114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2 - 2290 - 9717

http://seoul.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내시경▲	윤병철	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월, 화▲, 수, 금▲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3주)	수	간 질환, 간암, 자가면역성 간염
	이항락	월▲, 수▲, 금, 토(4주)	월, 화, 수▲,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월▲, 화, 목▲, 토(1,2주)	월▲, 화▲,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윤재훈	월, 화, 목▲	월▲, 수▲, 목, 금	담낭염, 담낭담석, 담낭암, 담도염, 담도 및 간내담석, 담도암과 유두주위암, 급 만성췌장염, 췌장암
	최성지	화▲, 수, 금	월▲, 화, 수▲, 금▲	담낭, 담도, 췌장
	윤아일린	화, 수	수▲목금	간 질환, 간암, 급 만성 및 자가면역성 간염
	박진화	수▲, 목, 금▲	월, 화▲, 수, 금▲	식도, 위 장질환용종, 조기암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최한솔	월, 화, 목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박성화	금, 토(14주)	월, 수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승우	수, 토(3주)	화,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신진호	월, 수, 금	수	고혈압, 심부전, 심혈관중재술시술
	임영호	수, 금	월	관상동맥질환, 대동맥 및 말초동맥질환, 심혈관 중재술, 성인선천성심질환
	박진규	월, 목(백동기클리닉, 토(1주))	월(판독), 화	부정맥, 인공심장박동기
	허 란	화, 목(판독, 토(2주))	월, 목, 금	판독질환, 심부전, 심근병증, 폐고혈압, 심초음파, 관상동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말초동맥질환(동맥 경맥), 대동맥질환, 심혈관 및 말초혈관 중재술
	김우현	목, 토(3주)	화, 금	심혈관질환, 대동맥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심혈중재술, 경도관대동맥판막치환술
	국형돈	화	수, 목	심혈관질환, 대동맥판막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심혈중재술, 경도관대동맥판막치환술
	김근호	월, 금, 토(3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심부전, 부종, 복막투석
	이창화	화, 수, 금, 토(2주)	월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내과 2290-8300	박준성	월, 목, 토(3주)	화, 수	일반 신장질환, 사구체신염, 만성콩팥병, 고혈압, 부종
	이승현			일반 신장내과질환
	전혜원			일반 신장내과질환
	안우현	월-목, 토(1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부신
	김동선	월, 수, 목, 토(1주)	월, 화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내분비내과 내과 2290-8300	박정환	화, 수, 금, 토(4주)	수, 목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윤호주	월,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면역성 폐질환, 기침, 알레르기, 폐암, 결핵
	손장원	목		호흡기질환자관리,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폐암
	김상현	화, 금	월, 화	기침, 천식, 알레르기, 악물 부작용, 면역치료
	박동원	월, 화▲, 수▲, 목, 금▲, 토(2주)	월▲, 화▲, 수, 목▲, 금▲	폐암, 만성폐쇄성폐질환, 결핵, 중환자진료, 간질성폐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기관지내시경▲	이 현	월▲, 화▲, 수▲, 목▲, 금, 토(4주)	월▲, 화, 수▲, 목▲,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폐암, 간질성폐질환, 결핵
	김보근	월▲, 화, 수, 목▲, 금, 토(3주)	월▲, 화▲, 수▲, 목, 금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백선영		수, 목	호흡기 알레르기질환
	박병배	화, 목	목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노생식기계종양, 육종
	엄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오석중	화, 수	목, 금	혈액질환
	박권오	월, 목	화	혈액질환
	배현주			장 기 출 장
	김봉영	해 외 연	수(2023.09.01~2024.08.31)	
	김진남	수, 목	월	간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감염내과	박세윤	월	목,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윤초석	화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지클리닉
	이영호	월(구리), 화(세포치로), 목	화	제대혈이식,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암, 고혈압
	오재원		월	소아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천식,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소아 호흡기질환
	김용주	화, 금(내시경), 토(1주)	월, 목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간-췌-담도질환, 식도-위-십이지장질환, 내시경치료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양 승	목, 금, 토(24주)	화, 목, 금	성장장애, 성조숙증, 갑상선질환, 당뇨, 비만, 허거유전질환, 허거내시경
	박현경	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이현주	목, 금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인지혜	수	월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나재운	월, 수, 목, 금(구리), 토(1, 3주)	화, 수(심초음파), 금(구리), 토(심초음파), 수	소아심장 및 혈관질환, 부정맥, 성인선천성심장병, 가외사끼병, 소아 중환자
	최진주			
	이경미	월		
	김나영	월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경과 2290-8367~8368 세포치로센터 &클리닉▲ 2290-9377 서관 7층	김승현	월(루게릭)▲, 목	월(루게릭)▲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김희태	화, 수(이상운동 장애)초전, 목▲	화, 목 (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토(4주)	화, 수,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뇌수막염, 안면신경마비, 어지럼증, 불면증
	김영서	월, 금, 토(1주)	월, 수	뇌졸중, 경동맥협착,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오기욱	수(루게릭)▲, 토(2주)	월, 수▲(루게릭), 목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월, 화, 목, 토(2주)	월	뇌전증, 실신, 수면장애,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치매, 하지불안증후군
	성원재	월, 금▲, 화, 토(1, 5주)	월▲	일반 신경과질환
	정 수	목, 토(3주)	월, 화, 목	뇌졸중,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안면마비
	김용성	수, 금▲, 토(4주)		일반 신경과질환
정신건강 의학과 2290-8419	김현기	수▲, 금, 토(3주)		일반 신경과 질환
	김석현	월, 목, 토(24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노성원	화, 금, 토(1, 3주)	월, 목	중독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인지장애, 조현병
	김인향	월, 수, 토(4주)	수, 목, 금	소아정신의학, 소아/성인 ADHD, 발달지연
	이건석	화, 목, 금	화, 수	양극성 장애, 조현병, 불안장애, 우울증
피부과 2290-8434 레이저 클리닉▲	고주연	월(루피피과), 화(금), 토(2주)	월, 금	여드름, 피부미용, 레이저,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결체조직질환, 피부암, 건선
	김정은	월, 수▲, 목, 토(4주)	화, 수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질환, 피부암
	주민숙	수, 목, 금, 토(1, 3주)	월, 목	일반 피부질환
	김나영	월, 화, 목	목	11월 13일까지 진료
	하태경	화	월 (비만), 금	복강경/로봇위암수술, 고도비만대사수술, 복강경탈장수술
외과 2290-8444	이주희	월, 목	목	위암, 위장관질환, 탈장복강경, 로봇수술
	최지윤	화	수, 금	혈관외과, 신장이식, 지방종
	이정근	목	화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최동호	수	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김경식	금	수	담낭, 간암, 복강경수술, 간이식
	정윤경	월, 화	목	간, 담도, 췌장, 간이식, 복강경수술
	안병규	월, 수	수	대장(직장)암, 항문 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박성실	화	금	대장암, 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지방종, 복강경 탈장수술
	정민성	목	월, 목(만모토수술)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차치환	수, 금	화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갑상선질환, 로봇수술
소아외과	손준혁	금	화	소아탈장, 소아복강경수술, 선천성소화기 기형, 횡문근막기형(해마), 선천성 거대결장, 소아종양, 설소대, 소아변비, 단장증후군, 소장재활, 지방종
	김 혁	수	월, 수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대동맥수술, 선천성 심장질환
	장효준	월, 수, 토(2, 3주)	목	폐암, 식도암, 기흉, 다한증, 흉강경수술, 하지정맥류
	김완기	화, 금		판막질환, 대동맥 및 말초혈관질환, 하지정맥류, 동정맥류 수술
	이연주	화, 금	화, 금	관상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말초혈관질환, 동정맥류 수술
심장혈관 흉부외과 2290-8461	송승환	화, 목	화	흉부종양(폐암, 식도암, 종격동종양, 흉벽종양), 흉부기형(오목가슴, 사지), 기흉, 다한증, 흉부외상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화, 목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수	월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화, 목	화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2290-8473	김이석	금	월, 금	고관절 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화	목	골절, 외상, 골반골절, 다발성 손상, 골다공증성 골절, 골수염, 불유합, 고관절 골절
	이진규	목	화, 목	슬관절 클리닉(관절경화,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창훈	월, 금	수	수부외과 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성훈	수	월, 수	척추 클리닉, 골다공증
	배근형	토	화, 금	소아정형외과

\* 2023년 10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경추클리닉	백광흠	월, 수, 토(2주)		요통, 디스크(머리/허리),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추종양
	이형중	목, 토(3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목, 토(4주)	월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월,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 수술, 모야모야병,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두부외상
	나민균	화, 금	화	뇌종양, 뇌하수체 종양, 두부외상, 수두증
	한명훈	금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 TX)
성형외과 2290-8560	고신웅		목, 금	응급실 통해 온 두부외상 환자 in 진료
	이영만	목	화	두경부 종양 및 연부조직조영, 육방 및 만성 창상, 안면부 외상
	김연환	해 외 연 수		
	박성오	월, 수, 금, 토(1주)	월	안면외상(골절 및 신경재건),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장민숙	목, 토(3주)	화, 목	소아성형, 안면외상, 화상, 미세성형, 골수염, 만성창상, 액취증, 지방흡입, 미용성형
산부인과 2290-8400	김효성	화, 토(2, 4주)	수, 금	미용성형, 양성종양, 만성창상, 육창
	황정혜		월, 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중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화, 목	화, 목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목, 토(1, 4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화, 금, 토(2, 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엄정민	금, 토(2, 4주)	월, 수	난소암, 자궁암, 일반 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금지현	월, 수, 토(1, 3주)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임한웅	수, 금	월	성인사시, 마비사시, 소아안과, 약시, 신경안과, 성형안과, 백내장
	안성준	화, 금, 토(1주)	화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이원준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김유정	월, 토(3주)	수, 목	각막질환, 건선안, 류마티스안과질환, 쇼그렌증후군
	김지홍	월, 목, 토(4주)	목	망막, 유리체, 포도막, 일반안과질환
	권현윤	토(5주)	금	망막, 유리체, 포도막, 일반안과질환
	김경래	목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이비인후과 2290-8580	태 경	월, 수	수	갑상선암, 두경부암, 후두암, 구강암, 로봇수술, 음성질환
	조석현	월, 화, 금, 수, 연(목, 토(1주))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 무호흡
	송창면	화, 목, 토(3주)	화, 목(음성클리닉)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정재호	화, 목	화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최해원	토(4주)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희령	수, 금, 토(2, 5주)	목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용태	화, 목	화	비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 성기능장애, 불임
비뇨의학과 2290-8593	박성열	월, 목	월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소아 비뇨기과
	조정기	월, 금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윤영은	화, 수	화, 수	결석, 로봇/복강경 수술, Endourology, 신장암, 방광암, 비뇨기 종양 항암치료, 신장이식, 전립선 비대증
	정규환	수, 금	수, 금	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결석, 혈뇨, 방광염, 전립선비대증, 로봇수술
	김미정	월,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재활의학과 2290-9350	김준엽	월(루게릭), 화, 목, 토(1주)	목, 금	심폐재활, 뇌신경재활(이상운동), 암재활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박혜진	월, 화, 금	화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이수진	수		Ri치료
치과 2290-8671	황경균	월, 화, 목, 토(2주)	월, 화, 목	턱얼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비,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화, 목, 금, 토(4주)	화, 수	턱얼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비
	한지영	월, 수, 금, 토(2주)	월,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정혜전	월, 목, 금, 토(4주)	월, 목,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임승원	월, 수, 목, 토(2, 4주)	월, 수, 목	심미교정, 수교정, 투영교정, 성장기교정, 성인교정
	인희진	월, 목, 토(2주)	월, 화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일반보철
	박훈기	수, 금, 토(3주)	월, 목	가정의학, 스포츠의학
가정의학과 2290-8738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만성피로,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황환식	화	금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화, 수(1, 3, 5주)	산업재해, 업무상 질환, 직업 및 환경성 질환
	이수진	월	월, 수(2, 4주)	산업재해, 업무상 질환, 직업 및 환경성 질환
	김인아		월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민지희		수, 목	직업병 안심센터 치료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성인형스탈병, 염증성근염, 골관절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2주)	화, 목(화정종클리닉, 목, 금)	통풍, 경피증(전신경화증), 레이노현상, 류마티스관절염, 재발성류마티즘
	김태환	화, 목, 토(1, 3주)	월, 화	강직척추염, 척추관절염증
	성윤경	월, 수, 금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쇼그렌병, 골다공증, 골관절염, 강직척추염
	최찬범	화, 수, 목, 토(1주)	수, 목	류마티스관절염, 혈관염, 건선관절염, 강직척추염, 베체트병, 통풍, 루푸스, 골관절염
	조수경	월, 수-금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염증성근염, 통풍
	남보라	화, 금, 토(2주)	월, 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송여진	월, 수, 목, 토(1주)	수,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김용범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척추염, 섬유근육통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한정영	금, 토(3, 4주)	수	
	박시복	수, 금, 토(3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질환, 근골격계재활, 발크리닉
통증의학과 2290-9216	이규훈	월, 화, 목, 토(4주)	화, 목	족부재활, 스포츠의학, 뇌졸중, 류마티스질환
	김초롱	화, 금	화, 금	신경병성통증, 척추통증, 급만성통증
골관절외과 2290-9216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증, 인공슬관절전치환술), 류마티스 슬관절염, 골관절염, 인대손상, 관절 연골손상
	이봉근		목	회전근개 질환, 류마티스질환, 견주관절크리닉
	최성훈	월		경추크리닉(목디스크, 골절), 류마티스성 척추질환
류마티스 안과	김유정	목(1, 3, 5주)	월	쇼그렌 증후군, 강직척추염 관련 안질환, 류마티스관련 건선안, 공막염, 포도막염, 백내장, 각막질환, 콘택트렌즈
	안성준	목(2, 4주)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류마티스피부과	고주연	월		류마티스 피부질환
	김봉영	해 외 연 수		
류마티스 예방접종 클리닉	김진남		화(2, 5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윤초석		화(4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박세윤		화(3주)	류마티스 예방 접종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센터 2290-9550	박훈기		화, 수	가정의학,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박계영	월-금, 토(2주)	금	평생건강관리, 비만치료

■ 대표전화/전화예약 : 1644 - 9118 ■ 진료의뢰 의사전용 : 031-560-2082 <http://guri.hyumc.com> \* 2023년 10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정지환	월	화, 목	뇌혈관질환, 뇌동맥류수술, 뇌허탈·내수출(뇌하연·내수출증), 두부외상(외상)외 세부전문인)
	류제일	화, 수, 토(2주)	금	척추질환(최소침습수술, 척추내시경), 척추종양, 척추외상(외상)외 세부전문인)
	한형훈	월, 목, 토(3주)	수	뇌종양, 비강악기성 뇌, 발달이상선세포수술(비중용·뇌활판기형), 두부외상
	원우덕	금, 토(1주)	월, 수	뇌동맥류, DVA/DVAF, 뇌실막염·뇌졸중, 뇌출혈, 뇌농양, 혈관기형, 혈관다발성 뇌외상
	하병진	목, 토(4주)	월, 화	척추질환, 신경계 외상, 척추내시경
심장혈관계 흉부외과	노순균	화, 금	수, 금	심장질환(관상동맥색상조영영상학)대상 심장종양, 대동맥 및 흉곽질환(흉장벽물방울등대동맥질환·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최수환	월, 수	월, 목	총경골수술, 복합 시도임, 기흉, 다빈종 종격절제한 총부위상, 흉곽기형
정형외과	박예수	월, 수, 금	토(2주)	외상성 골·근육손상 치료법, 척추기능적 정교수술, 척추신 경압박 및 척추관협착
	박기철	수, 금, 토(2주)	월	퇴행성·괴저질환, 관절변형, 사지병형·관절 질환, 골단결함 병유 및 골재생
	정규성	화, 토(4주)	수, 목	무릎관절, 스포츠트라우마(타이 및 연골), 관절염 및 인공관절치환
	조정훈	화, 목, 토(1주)	월	견관절, 팔꿈치 스포츠트라우마 외상 진단에 따른 상완요구체·팔꿈치·미세수술, 골절 및 양측
	이영식	월, 토(3주)	화, 금	수부미세수술, 류마티스·수부질환, 손목, 팔꿈치 관절경
성형외과	최승석	목	월	말초신경수술·수부재건·유행성홍역 당·발 욕창
	이창현	화,토(1234주)	목	안검하수, 안면기형, 피부암, 침샘종양, 당뇨발, 미용성형
	장정우	월, 금	수	미세수술, 당뇨족, 육창, 안면외상, 미용성형
	정재아	수	화, 금	유방 재건 및 성형, 흉터 성형, 당뇨병, 당뇨발, 미용 성형
	박혁겸	월, 목	화	간담낭·췌장·복강강경수술을 위해 포로 치료 및 연구
외과, 유방클리닉▲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쇄취고, 복강강경수술
	김민규	화, 수	월	복강경수술 위암, 위궤양, 비만 및 대사질환, 소장, 탈장
	김형식	월, 목, 토(1234주)	월 ▲, 화	유방갑상선외과(유방종양, 유방암, 갑상선생선, 갑상선암)
	이춘호	수	월, 수	대장외과(대장, 조식질환)
	김천일	수	목	중환자센터·집단지론전문의, 복강경수술, 위장관, 소장, 탈장
	조유정	화, 금	수	소아외과, 소아복강경수술, 소화탈장, 소화외과질환, 성인탈장
	황성찬		금	항문질환, 일반질환
	조희운	화, 목	화 ▲, 목	멍막 및 유두배질환, 담낭·맹장질환, 항문변형, 포도막염
안과, 클리닉▲	나성칠	수	월, 수	신장, 고인접점, 배내장
	김민호	월, 토(1주)	화, 목	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합병백내장, 인공수정렌즈, 황반파열, 망막질환
	신웅은	월, 금	월 ▲, 수 ▲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당뇨병 관련질환, 포도막염
	홍은희	목	화, 금	신장과 사시, 노인안과, 자력 신장애, 망막질환, 녹内障, 눈알질환 클리닉
	황선진	토(2주)	월, 수, 목 ▲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당뇨병 관련질환, 항문변형, 포도막염
피부과	김두루	수, 금, 토(3주)	화	각막, 결막, 안구건조증, 합병백내장
	김정수	화, 목, 금	화	여드름 주사, 소아피부질환, 피부보존 및 사망기생 질환 개선
	서헌민	수, 토(1234주)	월,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접촉피부염, 백반증, 지렁이질환, 파우더와 피부질환
	이성한	월	목	만성종이염, 난창,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치
	정진혁	화, 금	수	비대(코질환), 부비동염, 비중격 휘곡畸形 수술, 알레르기비염 코표, 코성형
이비인후과	지용배	월, 목	화	중광음향·극강·극저주파 진동, 감각·청각 장애, 내이감각 상실 수술, 중귀중양, 음성질환(목소리 성형질환), PITA 편도 절제술(통풍치료수술)
	정재호		수	어지럼증, 이명, 난청, 중이염, 소아비인후과, 편도 및 아데노이드 수술
	정성민	수	월, 금	알레르기비염, 코폴립 및 수면무호흡, 부비동염, 비종격 및 코막힘 수술, 소아비인후과, 편도 절제술, 이비인후과 감염질환, 구강질환, 일반 이비인후과
	서희원	수, 금, 토(4주)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유병준	화, 목, 토(1,2주)	화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이하나	토(3주)	화, 목	일반 이비인후과 질환
	문홍상	수, 목, 토(3주)	월, 목	전립선비대증, 방광·전개에 대한 요실금 과민성방광, 노년비뇨의학
	이승국	월, 금, 토(1주)	화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전립선경수술, 남성과학
	송병도	화, 토(2주)	수, 금	비뇨기계장양, 결석, 전립선질환
재활의학학과	장성호	월, 금	월, 수	근골격계 재활, 보행분석, 족부질환
	한승훈	화, 수, 목	화, 목	근골격계 재활·외상·스포츠 등 어깨, 팔꿈치, 손, 허리, 목, 엉덩이, 무릎, 발, 통풍), 소아재활, 스포츠외과, 뇌신경재활, 삼킴장애
	박재현	월, 수	금	근골격계 질환(어깨통증, 무릎통증, 허리로통증, 목통증)의 재활치료,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 질환, 운동치료
치과	박원희	월, 화, 수, 목, 토(1~3주)	수	심미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모, 턱관절 질환
	김윤영	화, 금, 토(2주)	월, 화, 목, 금	심미보철, 일반보철, 임플란트
해악학과	김지영		화	중앙턱악학
	직업환경 의학과	장태원	화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직업 및 환경성 질환
영상의학과	김양우		목	업무 관련성 평가, 업무 적합성 평가
	김응태	월~금	월~금	인터벤션 영상의학
진단정보시스템학과	박정은		목	유전자 여성성(난소수술, 유방암) 유전자상담
마취통증의학과	임바람		월, 목	당일수술 마취전처치
통증클리닉	さい채향	월, 수, 금	월, 금	급 · 만성 통증관리 및 치료
	박형준	화, 목, 토(1주)	화, 수, 목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만성질환
관절류마티스 클리닉	이혜순	금	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통풍, 루푸스, 건염, 베세트 병, 피부관련 증상 치료
	방소영	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통풍, 강직성척추염, 베세트 병, 전신경화증(경피증), 섬유 근조직증, 레이노 증후군
	주영빈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베세트 병, 루푸스, 만성통증
발달장애 클리닉	장성호	목, 토(4주)		어깨통증, 뇌출혈·재활, 관절염, 장애인재
관절재활 클리닉	박재현	화, 토(3주)	목	근골격계 질환(어깨통증, 무릎통증, 허리로통증, 목통증)의 재활치료, 심장재활, 호흡재활, 일반재활의학과 질환, 운동치료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류제일		화	척추질환 최소 침습적 척추수술, 척추종양
통증심리 클리닉	김대호		수	통증 스트레스 상담



#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생명 지킴이 입니다

AM 10:00

한 땀 한 땀  
생명을 붙여넣는 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린넨실

홍정미 계장

입원환자용 환자복, 의사가운, 수술복 등 병원에는 여러 종류의 옷이 필요합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린넨실의 홍정미 계장을 보면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구가 생각납니다. 무관심속에 잊혀지는 잡초가 아니라 이름이 불리움으로써 향기로운 꽃이 되었다는 시구처럼, 옷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명을 붙여넣는다는 마음으로 옷을 만든다는 그녀. 바느질 한 땀 한 땀에 환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까지 담는다는 그녀는 오늘도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